

碩士學位論文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곶자왈’을 중심으로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The logo is circular, containing a stylized flame or leaf design in blue, green, and purple.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half of the circle,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half. In the center of the logo, the text 'JEJU 1952' is visible.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鄭 載 燁

2009年 2月

#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꽃자왈’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최낙진

鄭載燁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鄭載燁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12月

A Comparative study of TV Documentary  
produced by Key Station and Local Station  
; Focus on 'Jeju Ancient History',  
'Tam-ra sunryukdo' and 'Gotjawal'

Jae-Yup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09. 2.  
JEJU  
195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II. 이론적 논의	3
1.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3
2. TV다큐멘터리의 특성	4
1) TV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4
2) TV다큐멘터리의 유형	6
3) TV다큐멘터리의 역할	6
4) TV다큐멘터리와 사회적 담론	7
3. TV다큐멘터리 서사구조	8
1) 서사구조의 구성요소	8
2) 우리나라의 TV다큐멘터리 서사구조 연구	9
3) 양식론의 개념	11
4) 해설적 다큐멘터리 양식론	12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4
1. 연구문제	14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방법	18

VI. 연구결과 .....	20
1. 형식적 구성 분석 .....	20
1) ‘제주 고대사(古代史)’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	20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	22
3)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	24
2.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분석 .....	26
1)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26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32
3)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	38
3. 내레이션 분석 .....	47
1)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비교 분석 .....	48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비교 분석 .....	52
3)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비교 분석 .....	56
V. 결론 .....	65
1. 요약 및 논의 .....	65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70
<b>【참고문헌】</b> .....	71
<b>【영문 초록】</b> .....	75
<b>【부록: 시퀀스 분석표】</b> .....	77

##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 ‘제주 고대사(古代史)’, ‘탐라순력도’, ‘꽃자왈’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허구가 아닌 사실성(factuality)을 다루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장르와 구분된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구현되는 ‘진실’ 또는 ‘진실의 가치’는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 즉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특성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제주와 관련된 동일한 소재인 ‘제주 고대사(古代史)’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꽃자왈’을 다룬 중앙방송의 TV다큐멘터리와 제주지역방송의 TV다큐멘터리 10편을 선정, 각각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형식적 구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상호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또한 서사분석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내용과 전개 분석을 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내용을 통해 제작 주체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이 형식적 구성의 상호 비교에 있어 제작주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방송은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 높은 실촬영 비율을 보인 것이다.

세부 이야기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와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른 명확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별다른 관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제작자

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은 중앙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이야기의 내용에 있어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내레이션 내용의 경우 역사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모두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방송의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의 역사적 자부심과 책임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감’, ‘동질감’,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인문학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줬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중앙방송의 다큐멘터리와는 차별화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방송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지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이 갖는 차별화된 관점은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중앙방송, 지역방송, 다큐멘터리, 이야기, 내레이션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허구가 아닌 사실성(factuality)을 다루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장르와 구분된다.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작가의 시각을 통해 작품으로 형성되는 유형이 바로 다큐멘터리인 것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예술적인 거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사실들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려고 한다. 빌 니콜스(1991)는 다큐멘터리의 리얼리즘적 성격은 다큐멘터리가 곧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기초로 형성되었다고 했다(조수본, 2002, 재인용).

그러나 다큐멘터를 통해 구현되는 ‘진실’ 또는 ‘진실의 가치’는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 즉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관점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다큐멘터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관점이며 둘째는 제작된 다큐멘터를 시청하는 수용자이다. 특히 1차적으로 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제작자의 관점은 수용자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창윤·최영목(2003)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진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하나의 해석 또는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중립적인가 편파적인가, 사실성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 따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한 측면을 최대한 진실 되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록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균·진규찬, 2003, 27쪽).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현실에 대해 영상, 언어적으로 매개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표상화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TV 다큐멘터리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TV 다큐멘터리는 정보성 리포트, 베리테, 퍼스넬러티 다큐, 오락 다큐, 역사 다큐, 인물 다큐, 다큐 드라마 등 7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제작, 방송되고 있다(최양목, 2003).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TV 다큐멘터리 역시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진실’의 가치나 ‘진실’ 그 자체는

크나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제작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 역시 개인차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TV 다큐멘터리의 경우 지역방송과 중앙방송 간의 관점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방송이라는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혼재돼 있는데, 그 하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방송사의 중앙국에 대한 지방국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을 지리적 단위로 보면서 방송사가 위치한 지역의 독립된 방송국의 의미이다(서예란, 2008). 중앙방송에 대비되는 개념인 지역방송은 지역성, 공동의식, 공동규범의 요소를 지닌 지역사회와 그 문화를 반영하는 방송 매체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성은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관념,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공동의식 등을 말한다(강대인, 1999).

이러한 지역성은 '사실'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나 '사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방송의 대다수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바탕을 두어 이성애 호소하는 장르'라는 실버스톤(Roegr Silverstone)의 정의에 비취볼 때 지역성 반영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방송에서 제작되는 TV 다큐멘터리와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를 상호 비교해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지역성 구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을 전달하는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TV 다큐멘터를 통해 나타나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제주지역 방송과 중앙방송 간의 비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와 관련된 동일한 소재를 다룬 중앙방송의 TV 다큐멘터리와 제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를 선정, 각각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 차이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방송의 TV 다큐멘터리와 제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내용과 내레이션을 상호 비교하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는 형식적 구성 요소도 함께 분석하여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지역방송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을 구분하기 위해 방송학에서 논의되는 기준은 방송사의 소유주, 방송사의 내용(편성), 가시청권 등 네 가지가 있고 이에 따라 각각 별도의 정의가 가능하다.<sup>1)</sup>

먼저 방송사의 소유주가 지역연고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KBS와 MBC의 계열사는 지역방송이라 정의하기 어렵다.<sup>2)</sup> 둘째로 방송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는 방송이 지역방송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가시청권을 기준으로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을 지역방송이라 정의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이 지역방송이 된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네트워크인 동시에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국을 지칭한다. 넷째로 가시청권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광역지역방송, 중역지역방송, 협역지역방송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방송의 개념을 모두 적용할 때 지역민방이 비교적 지역방송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지역방송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유지해온 KBS와 MBC가 무의미하게 정의 내려짐으로써 이들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영민, 20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방송의 범위를 전국의 지역민영방송과 KBS지역총국, MBC 지역계열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는 JIBS와 KBS제주총국과 제주MBC를 지역방송으로,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SBS와 KBS, MBC본사, EBS를 중앙방송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 이양길, “지방방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7

2) 한국방송개발원, <지역방송 경영 효율화 방안>, 1997

## 2. TV 다큐멘터리의 특성

### 1) TV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reality)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마다 유형에서 기능에서 그리고 목적 등에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어떤 사건이나 문화현상의 실제적 모습과 가치 등을 예술적 유형으로 기록하거나 묘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초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작한 플레허티에 의하면 ‘다큐멘터리란 발견과 폭로(revelation)의 예술이며 모든 예술은 일종의 탐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세계최초로 개최된 다큐멘터리 세계 연맹(World Union of Documentary)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란 ‘경제, 문화, 인간관계 영역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시키며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의 촬영이나 진지하고 이해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 해석되는 사실의 모든 면을 영화화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이궁희, 1987).

이는 영화에 관련된 것이기는 해도 TV 다큐멘터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소재, 목적, 방법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러가지 텔레비전 장르 중에서 TV 다큐멘터리는 현존하는 인물과 사건 등 ‘실제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이나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 영향력 또한 다른 장르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황인성, 1999). 이처럼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논픽션(non-fiction)을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전평국, 1994). 다큐멘터리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라 설명되는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허구가 아닌 사실에 원칙을 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큐멘터리 리얼리즘적 성격은 다큐멘터리가 곧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는 수용자들의 기대, 그리고 믿음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Nichols, 1991).

그런데 가장 먼저 ‘다큐멘터리’란 용어를 사용한 존 그리어슨의 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평국, 1994). 그는 다큐멘터리를 ‘사실의 창조적 처리(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라고 정의하였다. 즉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큐멘

터리의 사실적 측면 뿐 아니라 창조적인 측면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다큐멘터리는 실제 상황에서의 실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언제나 제작자나 연출자의 명확한 관점 또는 의도가 담겨진 제작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황인성, 1999).

실제로 여태껏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결코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제작자가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미하여 실제 세계를 독창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를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다. 결국 다큐멘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이란 것은 철저히 제작자의 의도, 또는 목적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된 것, 즉 편집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김선임, 2002). 그것은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꾸며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주창윤·최영목(2003)은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은 ‘진실’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중립적인가 편파적인가, 사실성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 따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균·전규찬(2003)은 다큐멘터리가 가진 기록성과 허구성은 결코 상호 모순 되는 가치가 아니라 보고 있다. 이는 다큐멘터리적 진실성을 높이고자하는 작업에 있어 상호 긴장의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한 측면을 최대한 진실 되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록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균·전규찬, 2003, p.27). 이 과정에서 사실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기록성 다큐멘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완전한 허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즉, 다큐멘터리는 객관과 주관의 중간 단계인 경계지점, 즉 사실과 허구의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의 사실적 이야기 구성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선임, 2001).

TV 다큐멘터리가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가장 큰 요소는 그 소재가 현실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사실속의 ‘내적 진실’이 중요한 것으로 이 ‘내적 진실’을 위해 접근 방법과 형식 등 창조적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남성우, 2004).

## 2) TV 다큐멘터리의 유형

TV 다큐멘터리에 대한 분류는 대체로 소재에 따라 구분한다. 다큐멘터리 대표 채널 중 하나인 영국의 BBC에서는 크게 정보성 리포트, 베리테, 퍼스넬러티 다큐, 오락 다큐, 역사 다큐, 인물 다큐, 다큐 드라마 등 7가지로 다큐멘터리를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TV 다큐멘터리의 소재적 분류에서 최양목(2003)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1) 역사 다큐멘터리 2) 사회 다큐멘터리 3) 인간 다큐멘터리 4) 자연 다큐멘터리
- 5) 문화 다큐멘터리 6) 스포츠 다큐멘터리 7) 과학 다큐멘터리 8) 의학 다큐멘터리
- 9) 탐험 다큐멘터리 10) 엔터테인먼트 다큐멘터리 11) 환경 다큐멘터리

여기서 ‘환경 다큐멘터리’란 ‘자연 다큐멘터리’와 ‘사회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형태다. 즉 자연의 신비로운 형상을 담아내는 동시에 환경 파괴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결합한 것이다.

## 3) TV 다큐멘터리의 역할

실버스톤(Roegr Silverstone)은 다른 장르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다큐멘터리의 개념을 정의했다.

“현실에 대한 보고가 순전히 사실 그 자체라면 이는 뉴스다.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감정이나 논리에 호소하도록 처리하면 이는 드라마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면 오락이다. 이에 비해 사실에 바탕을 두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이다.”<sup>3)</sup>

그렇다면 ‘사실에 바탕을 두어 이성에 호소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다큐멘터리의 어떤 역할을 뜻하는 것일까?

미디어가 사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는 이미 저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이자 구조기능주의자인 라스웰(Harold Lasswell)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환경감시 정보의 선택과 해설 및 의견형성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전수가 그것이다. 그 이후에 라이트(Charls Wright)에 의해 오락이 맥퀘일(McQuail)에 의해 동원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양목(2003)은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기능

3) 남성우, ‘TV 다큐멘터리, 그 논의를 위한 사적 고찰’, 방송시대 통권 2호, 한국프로듀서연합회, 1992, 204쪽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한다.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공중에게 알리며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한다. 간결하게 보다는 자세하게 직선적이기보다는 완곡하게 딱딱하게 보다는 이성적이면서 심정적으로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여론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다큐멘터리는 역사의식을 갖게 한다.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것을 위해 역사적 사실과 배경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는 역사 인식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소재를 전해준다.

셋째, 다큐멘터리는 문화적 삶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즉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담론이란 다큐멘터리가 논의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완전히 사실의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일정 정도 방향지위진 일관성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현실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힘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즉 다큐멘터리에 대한 순수한 진리란 없고 다만 다양한 사회적 담론들에 의해서 구성된 다큐멘터리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다.

#### 4) TV 다큐멘터리와 사회적 담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서 ‘문화적 삶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TV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담론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는 홀(Hall, 1992)이 말한 <부호화-코드-해독>의 의미 순환 관계로 이루어진다. 즉, TV 다큐멘터리는 무엇보다도 방송이라는 고유한 매체의 기술적 인프라 체계와 방송사 특유의 제도화된 생산 체계,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관습 체계 혹은 성향에 따라 ‘아비투스’에 기초한 의미부호화의 작업이며, 그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이 된다(김균·전규찬, 2003, p.36, 재인용). 바꾸어 말하면 TV 다큐멘터리는 제작자들이 현실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판단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담아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를 거쳐 생산된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용진(1999)은 담론을 ‘특정 방향으로 논의되는 방식(a way of representing)’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담론적 접근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TV 다큐멘터리의 현실구성과 재현에는 반드시 사실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며,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담론이 개입된다고 보았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거대한 ‘담론적 구성체’로 보고 있으며, 모든 담론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담론은 특정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방향성으로 인해 다큐멘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고 본다.

## 2. TV 다큐멘터리 서사구조

### 1) 서사구조의 구성요소

다큐멘터리에서 서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야기를 가진 모든 텍스트를 서사(narrative)라 일컫는다. 1920년대 후반에 블라디미르 프롭(Vladimir Propp)과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들이 처음으로 서사이론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인류학자와 기호학자 등에 의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체계가 잡혀지게 된 것이다(Kozolof, 1992). 즉 서사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채트먼은 1978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이야기와 담론(Story and Discourse)>에서 모든 서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 되었는가’라는 서술방식인 담론(discourse)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최현주, 2005, 재인용). 이 같은 그의 이분법적 분류방법은 이후 여러 서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림몬-케넌은 이야기를 ‘발생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정의하고, 시모어 채트먼은 ‘서사물에서 묘사되는 ‘무엇’(what)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실제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전혀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되는대로 일어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이것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또는 인과에 의해서 연결된다. 이 이야기의 구조와 요소,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체계 등에 관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시학」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 중간, 끝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인영숙, 2001, 재인용).

다큐멘터리의 서사는 대부분 문제제기-긴장-해결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된다.<sup>4)</sup> 플래팅거(Plantinga, 1997)는 다큐멘터리서사구조의 시작은 항상 처음에 ‘안정상태’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이야기형식을 따른다고 설명했다(조수본, 2008, 재인용). 그리고 빌 니콜스(Nichols, 2001)는 이와 같은 서사구조 방식을 활용하여 다큐멘터리가 묘사하는 세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TV 다큐멘터리 서사구조 연구

TV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 연구는 유형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논문으로 김훈순(2000), 이종수(1999,2000)의 연구가 있다. 이종수(1999)는 건국50주년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재구성하는 연출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서사의 서술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회자의 직접화법과 기록필름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 over narration)을 전반적인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의 ‘증거’ 역할을 위해 중간 중간 인터뷰를 집어넣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사회자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의 주도적인 역할에 비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증인 인터뷰는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의 특집역사 다큐멘터리 역시 기존 다큐멘터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훈순(2000)은 KBS<역사스페셜>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TV 다큐멘터리가 과거에 대한 사실의 진위여부 보다 역사적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현의 표현방식을 찾아내었다. 이는 제작자에 의한 임의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스페셜>은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에 의존하기, 재연장면의 삽입 등 다양한 표현기법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청

4) 서사구성으로서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은 그 내부의 이야기 속에 갈등과 모순이 담겨 있지만 구성 속에서 그 갈등과 모순이 해결 되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더라도 수용자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텍스트를 수용한다. (김훈순, 2000).

자들에게 있어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닌 역사 멜로드라마로 보여 지도록 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가 역사적 사실과 의미 해독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심훈(2005)은 한미 양국의 시사다큐멘터리 속 이야기 구조가 내러티브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미국 CBS의 <60 Minutes>에서 공통으로 다룬 ‘쓰나미’관련 보도에 대한 서사분석을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KBS <환경스페셜>과 KBS <추적60분>을 비교 분석한 것은 최현주(2006)의 연구다. 다큐멘터리 유형 가운데 환경 다큐멘터리의 유형에 속하는 KBS <환경스페셜>와 시사다큐멘터리의 유형의 KBS <추적60분>에서 동일한 소재가 어떻게 내용적, 형식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추적60분>은 갈등의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반면, <환경스페셜>은 해설적 내레이션을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조수분(2008)은 ‘다문화 현실’을 다룬 TV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다문화 현상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고 그 특성이 함축하는 의미를 분석한 것으로 다문화주의 담론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야기 구조와 담화를 분석하고 TV 다큐멘터리와 다문화 현실의 재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서사 구조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동일한 소재를 다룬 중앙과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서사 구조와 해설을 상호 비교할 경우, 두 주체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경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지역방송의 역할인 지역성 구현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중앙방송의 TV 다큐멘터리와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서사구조 분석은 이제까지 TV 다큐멘터리 연구들이 보여줬던 분석의 흐름과 연구방법을 이어가는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단,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 관점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사 구조 분석 가운데서도 이야기 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 3) 양식론의 개념

빌 니콜스는 여러 다양한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을 양식이라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기법과 표현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작자의 철학과 관점 그리고 주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양식을 서술과 목소리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해설적 양식(Commentary Mode)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다큐멘터리가 이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설명 방식으로 익명의 해설자가 영상의 내용을 서술한다. 전지적인 시점의 해설(voice of God)을 특징으로 하는 이 방식은 그리어슨에 의해 시도되어 자리 잡은 양식이다. 전지적 시점의 해설자는 주제를 전달하는 권위적 존재이다.

둘째는 관찰적 양식(Observational Mode)으로 해설의 전지적인 시점을 사실의 왜곡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해설의 개입을 거부하고 단지 있는 그대로를 현상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진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0, 60년대 대두한 시네마 베리떼와 디렉트 무비 작가들에 의해 추구된 제작방식이자 영상 철학이다. 촬영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롱 테이크(long take)<sup>5)</sup>를 주로 활용한다.

셋째는 상호관계적 양식(Interactive Mode)으로 이 양식의 핵심은 인터뷰의 주도적인 활용에 있다. 인터뷰가 주를 이루며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를 구성한다. 해설 양식이 해설자의 단조로운 목소리에 의존하고, 관찰적 양식이 현장음을 강조한 것에 비해 형식적으로 비교되는 양식이다. 숨겨진 사실을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언을 활용한다. 단 증인들이 증언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는 영성한 느낌을 주는 것이 단점이다.

넷째는 성찰적 양식 (Self-conscious Mode) <sup>6)</sup>이 있다. 연극의 소외이론에서 출발한 이 양식은 낯설음의 제시를 특징으로 한다.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작가는 전지전능한 주체가 아니라 그 역시 객체의 일관이라는 시각을 출발점으로 함으로써 진실을 획득해 보고자한 시도이다. 성찰적 양식에서 접근 방식이나 형식 자체가 주제이거나

5) 롱 테이크(long take) : 솟을 길게 하여 촬영하는 기법

6) 국내에서는 '자기반영적 양식'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주제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문화인류학적 다큐멘터리에 주로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는 작가 자신도 하나의 객체가 된다.

끝으로 수행양식(Performative Mode)<sup>7)</sup>은 빌 니콜스가 94년 주장한 것으로 지시에서 벗어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다큐멘터리의 공통적 특성으로 여겨졌던 객관적 담론의 대상을 주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가졌던 논쟁을 설득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4) 해설적 다큐멘터리 양식론

니콜스적 분류의 핵심은 해설의 지위에 있다. 해설적 양식 이후에 등장한 나머지 양식들은 어떤 의미에서 해설의 지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발전에 있어서 양식들 간의 쟁점은 해설(voice)에 집중되어져 있다. 빌 니콜스(Bill Nichols, 1985)는 해설은 양식보다 더욱 좁은 의미의 그 무엇이다. 그것은 텍스트의 사회적 시각,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 그리고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했다. (진기웅, 2001, 재인용).

즉 해설적 양식 외의 제반 양식은 기본적으로 해설적 양식으로 제기된 사실의 과장과 왜곡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설적 양식 이외의 나머지 양식들에 있어서 해설은 공통적으로 전지적인 시점을 상실하게 된다. 그 대신 해설은 등장인물의 관점 또는 제작자의 관점 등 국부적인 시각을 취한다.<sup>8)</sup> 따라서 해설의 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니콜스의 양식 분류는 기본적으로 해설적 양식과 나머지 양식들의 대치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형식적으로는 해설적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권위적 해설자(narrator of authority)가 설명하는 내용에 설득력

7) 국내에서는 '연행양식'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8) 해설의 전지적 시점에 대한 거부감은 아예 해설 자체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전주의 다큐멘터리 <돼지해의 베트남>에서는 일체의 해설이 제거되고 오로지 현장음과 인터뷰로만 구성돼 있다.

을 보강하기 위해 예시영상(images of Illustration)을 덧붙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이 기준에 적용해 본다면 KBS의 <일요스페셜>과 <환경스페셜> 시리즈가 전형적으로 이 형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설적 양식 프로그램들의 내레이션을 분석함으로써 전지적 관점을 지닌 화자가 어떠한 시각으로 소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TV 다큐멘터리가 제작주체에 따라, 즉 중앙방송에서 제작된 프로그램과 제주의 지역방송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식적 구성과 이야기 내용, 내레이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여 제작주체에 따른 상세한 상호 비교를 하고자 한다.

먼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실촬영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인터뷰, 자료접사와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형식적 구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상호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1>을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사분석의 두 가지 측면인 스토리와 담론 가운데 스토리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즉 이야기 내용에 대한 분석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내용적 측면에서 이야기 구성이 기본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완성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주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은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야기 내용의 구성 역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2>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2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국내 대부분의 TV 다큐멘터리는 양식 분류에 있어 해설적 양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설적 양식에 있어 내레이션은 큰 역할을 한다. 많은 다큐멘터리가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이고 해설적인 논술이나 설명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연출자들은 수집된 자료에 의해 얻은 객관적 사실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화형식으로 전달하려 한다. 따라서 내레이션은 절대적 권위와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작 주체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는 용이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므로 <연구문제3>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연구문제 3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제작 주체에 따른 TV 다큐멘터리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제작주체는 다르나 소재는 동일한 다큐멘터리를 다음과 같이 3개 소재-‘제주 고대사(古代史)’, ‘탐라순력도’, ‘곶자왈’-총 10편의 프로그램을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은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에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소재가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각각의 소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고대사(古代史)’는 제주의 선사시대 역사에서부터 탐라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일컫는다. 특히 탐라국은 이와 관련된 문헌이 전해지지 않아 여태껏 베일에 쌓여있다. ‘제주 고대사’를 다룬 프로그램으로는 KBS <역사스페셜><sup>9)</sup> 제57회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와 JIBS의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탐라왕국 재조명(1부)-탐라

9) KBS<역사스페셜>은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한 소재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1998년 10월 1회 방송을 시작하여 2003년 6월 214회를 끝으로 종영되었다.

인의 실체를 찾아서」와 「탐라왕국 재조명(2부)-탐라왕국의 실체를 찾아서」가 있고 이 세 프로그램이 상호 비교 분석 대상이 된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이형상 목사가 제주목사로 도임했던 1702년 가을, 20여 일에 걸쳐 관내순시를 하었는데 이때의 장면과 그 후의 행사들을 그려놓은 화첩이다. 이형상 목사의 후손에 의해 대대로 보관돼 오다 1974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후 보물 제652-2호로 지정된다. ‘탐라순력도’를 다룬 프로그램은 KBS<역사스페셜> 제85회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와 JIBS 특집다큐멘터리 <조선왕조실록 제주사 재조명-제6편>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이며 이 두 프로그램이 상호 비교 분석 대상이 된다.

‘곶자왓’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숲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굳은 바위 위로 생겨난 숲을 말한다.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자 바다와 한라산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최근 곶자왓 일부 지역에 대한 난개발 문제로 제주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곶자왓’을 다룬 프로그램으로는 EBS<하나뿐인 지구><sup>10)</sup> 제858회 「물의 숲, 곶자왓」, KBS<환경스페셜><sup>11)</sup>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왓」, 「원시의 숲, 고래곶자왓은 사라지는가」, JIBS 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땅, 곶자왓의 사계(四季)-2부작」 모두 세 가지 제작 주체, 4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빌 니콜스의 양식분류에서 해설적 양식에 해당한다. 단 KBS<역사스페셜>의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와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의 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기 위한 설정으로 해석할 때 넓은 의미에서 해설적 양식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재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유형 분류에 있어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은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으로 ‘곶자왓’ 관련 프로그램은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EBS<하나뿐인 지구>는 1991년 9월 첫 회 방송을 시작한 우리나라 TV 최초의 환경전문 정규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계도, 캠페인성 등으로 5~10분 분량에서 시작하여 1993년부터 본격적인 환경 다큐멘터리로 전환되었다.

11) KBS<환경스페셜>은 1999년 봄 첫 방송을 시작한 환경전문 정규프로그램으로 주로 국내의 산과 바다, 습지 등의 자연 환경의 수려한 생태와 이를 보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대상 프로그램 가운데 KBS<역사스페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 와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EBS<하나뿐인 지구>는 중앙방송에서 제작, 전국 권역으로 방송된 경우로 제작주체로 볼 때 중앙방송에 해당된다. 반면 KBS<환경스페셜>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 「원시의 숲, 교래꽃자왈은 사라지는가」 2편은 제주에서 제작돼 전국 권역으로 방송된 경우로 제작주체는 지역방송에 해당되고, JIBS의 <조선왕조실록 제주사재조명>, <탐라왕국 재조명>,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는 제주에서 제작돼 제주에서 방송된 경우로 마찬가지로 제작주체는 지역방송에 해당된다.

<표-1> 연구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소재	제작 방송사	제작 주체	대상 시청자 권역	방송일
<역사스페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	제주고대사 (濟州古代史)	KBS	중앙	전국	2000.2
탐라왕국 재조명(2부작)	"	JIBS	지역	제주	2003.10
<역사스페셜>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KBS	중앙	전국	2000.9
<조선왕조실록 제주사재조명>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	JIBS	지역	제주	2004.6
<환경스페셜>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	꽃자왈	KBS 제주	지역	전국	2004.3
<환경스페셜> 원시의 숲, 교래꽃자왈은 사라지는가	"	KBS 제주	지역	전국	2005.11
<하나뿐인 지구> 물의 숲, 꽃자왈	"	EBS	중앙	전국	2006.2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四季)-2부작	"	JIBS	지역	제주	2008.1

## 2) 연구방법

<연구문제1>을 위한 형식적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부분으로 오픈링 멘트(Opening Ment), 브릿지 멘트(Bridge Ment), 클로징 멘트(Closing Ment) 알아본다.
- 2) 인터뷰 부분은 전문가 인터뷰와 증인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 3) 다큐멘터리 화면구성 부분은 실촬영 화면(야외촬영)을 통해 알아본다.
- 4) 자료화면 부분은 고자료와 특정 물체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 5) 기술적인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알아본다.

분석요소1)의 경우 연구 대상에 있어 KBS<역사스페셜> 2개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KBS<역사스페셜>은 가상의 공간에 진행자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물론 프로그램 중간, 내용의 전환 및 진행을 위해 등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끌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분석요소2)의 경우 인터뷰는 크게 전문가 인터뷰와 증인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 인터뷰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의 멘트를 전달하는 것이며 증인 인터뷰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의 멘트를 전달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의 현장감과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분석요소3)에서 실촬영, 즉 야외촬영(location)은 여러 가지 장치와 장비가 갖추어진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어떤 장소나 지역, 또는 조건을 가리지 않고 촬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다.

분석요소4)에서 고자료는 옛 문헌 등을 촬영한 것이며 특정 물체 접사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 스튜디오나 박물관 등에서 유물과 같은 물체를 촬영한 것으로 야외촬영과 구분돼야 할 것들을 말한다. 영상자료는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촬영을 한 영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상물을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측정은 정확도를 위해 프레임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초단위로 반올림, 또는 버림을 통해 얻은 값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2) 측정도구는 소니 DVCAM

12) 소니 DVCAM에서 1초는 30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끝자리가 14프레임 이하일 경우는 프레임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2>를 위해 서사이론에서 사용하는 서사구조 분석의 틀 가운데 이야기 내용 분석을 통해 상호 비교해 보았다. 이야기 분석은 이야기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인물의 유형, 인물들 간의 관계, 이야기 전개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정한 등장 인물을 가지지 않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분석이므로 인물의 유형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이야기 전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토도르프의 시퀀스 분석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를 거쳐 종결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이야기의 전개의 구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건의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 기승전결 구조 등 사건의 배열을 분석하는 통합체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이야기 구조 분석방법에 이어 각각의 프로그램의 관점을 비교하는 데는 내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있어 제작자의 관점은 해설자의 설명적인 내레이션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인터뷰가 삽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장치일 뿐이며 프로그램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내레이션의 형태로 설명되기 때문이다(홍혜경, 2001).

특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있어 <기>부분과 <결>부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본인의 제작의도와 관점,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제작자들은 <기>부분을 ‘프롤로그’, <결>부분을 ‘에필로그’라 말하며 이 부분의 영상과 원고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한소진, 2007, 한지원,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3>을 위해 각 프로그램의 <기>부분과 <결>부분의 내레이션을 상호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재를 다룬 프로그램이 각기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려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위 수치를 버림 처리하고 15프레임 이상인 경우는 30프레임, 즉 1초로 반올림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출연자 A의 인터뷰가 30초 12프레임으로 측정됐을 경우, 12프레임을 버리고 30초로 처리하며, 출연자 B의 인터뷰가 45초 21프레임으로 측정됐을 경우는 21프레임을 1초로 반올림하여 46초로 처리하게 된다.

13) 이야기 내용 분석에는 선행연구(최현주, 2006)의 이야기 구성도틀을 참조하여 이를 기준 틀로 도식화 하였다.

## VI. 연구결과

### 1. 형식적 구성 분석

#### 1) ‘제주 고대사(古代史)’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형식적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부분으로 오프닝 멘트(Opening Ment), 브릿지 멘트(Bridge Ment), 클로징 멘트(Closing Ment)이며 둘째, 인터뷰 부분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증인 인터뷰가 있고 셋째, 다큐멘터리 화면구성 부분으로 실촬영 화면(야외촬영)과 넷째, 자료화면 부분으로 고자료와 특정 물체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끝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들 수 있다. 먼저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을 산출한 값은 <표-2>와 같다.

<표-2>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프로그램명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		탐라왕국재조명 1부(JIBS)		탐라왕국재조명 2부(JIBS)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10' 58"	19.9%				
전문가 인터뷰(a)	10' 25"	19.0%	11' 21"	23.3%	16' 58"	30.6%
증인 인터뷰(b)	1' 50"	3.3%				
실촬영 화면 (야외 촬영)	18' 51"	34.3%	28' 39"	58.9%	26' 48"	48.4%
고자료,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 등	7'	12.8%	7' 16"	15.0%	8' 9"	14.7%
컴퓨터 그래픽	5' 45"	10.5%	1' 22"	2.8%	3' 29"	6.3%
합계	54' 54"	100%	48' 38"	100%	55' 26"	100%

우선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직접 말하기’가 19.9%, 인터뷰가 전문가 인터뷰(19.0%)와 증인 인터뷰(3.3%)를 합하여 22.3%, 실촬영 화면이 34.3%, 고자료와 접사가 12.8%, 컴퓨터 그래픽이 10.5%로 나타났다.

두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요소에 있어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부분이 있는 반면,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이와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2편으로 돼 있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간 직접비교를 하기 위해 <표-3>을 만들었다. <표-3>에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직접 말하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로 구성 비율을 산출했고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2편의 프로그램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표-3>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2(‘진행자 직접 말하기’ 부분 제외)

프로그램명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		탐라왕국재조명2부작(JIBS)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10' 58"	-		
전문가 인터뷰(a)	10' 25"	27.9%	14' 10"	27.2%
증인 인터뷰(b)	1' 50"			
실촬영 화면 (야외 촬영)	18' 51"	43.0%	27' 57"	53.3%
고자료,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 등	7'	16.0%	7' 43"	14.8%
컴퓨터 그래픽	5' 45"	13.1%	2' 26"	4.7%
합계	54' 54"	100%	52' 2"	100%

위 표를 통해 두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을 비교해 볼 때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실촬영 화면 53.3%-인터뷰 27.2%-고자료 14.8%-그래픽 4.7%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실촬영 43.0%-인터뷰 27.9%-고자료 16.0%-그래픽 13.1%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지역방송의 경우 실촬영 부분이 많은 반면(지역방송 53.3% > 중앙방송 43.0%) 중앙방송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의 비율이 높은 것(지역방송 4.7% < 중앙방송 13.1%)으로 나타났다.

다.

결론적으로 ‘제주 고대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은 제작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앙방송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방송의 경우 실촬영 부분이 10%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중앙방송이 지역방송에 비해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방송이 실촬영으로 많은 부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중앙과 지역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른 것인지 제작자의 제작성향에 따른 것인지 명확한 구분은 어려워 보인다.

##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에 이어 ‘탐라순력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을 산출한 값은 <표-4>와 같다.

<표-4>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프로그램명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JIBS)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13' 41"	24.1%		
전문가 인터뷰(a)	10' 56"	19.3%	6' 40"	13.8%
증인 인터뷰(b)	1' 53"	3.3%		
실촬영 화면 (야외 촬영)	11' 32"	20.3%	14' 35"	29.9%
고자료,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 등	17' 26"	30.8%	23' 40"	49.1%
컴퓨터 그래픽	1' 8"	2%	3' 35"	7.4%
합계	56' 42"	100%	48' 15"	100%

먼저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경우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가 24.1%, 인터뷰가 22.6%(전문가 19.3% + 증인 3.3%), 실촬영 화면이 20.3%, 고자료 접사가 30.8%, 컴퓨터 그래픽이 2%로 나타났다. 반면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는 인터뷰가 13.8%, 실촬영 화면이 29.9%, 고자료 접사가 49.1%, 컴퓨터 그래픽이 7.4%로 나타났다.

이 두 프로그램의 비교 역시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에서 진행자

의 직접 말하기 부분을 제외하고 형식 구성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2('진행자 직접 말하기' 부분 제외)

프로그램명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JIBS)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	13' 41"	-		
전문가 인터뷰(a)	10' 56"	31.5%	6' 40"	13.8%
증인 인터뷰(b)	1' 53"			
실촬영 화면 (야외 촬영)	11' 32"	26.2%	14' 35"	29.9%
고자료,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 등	17' 26"	40.0%	23' 40"	49.1%
컴퓨터 그래픽	1' 8"	2%	3' 35"	7.4%
합계	56' 42"	100%	48' 15"	100%

위 표를 통해 두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을 비교해 볼 때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는 고자료 49.1%-실촬영 29.9%-인터뷰 13.8%-컴퓨터 그래픽 7.4%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고자료 40.0%-인터뷰 31.5%-실촬영 26.2%-컴퓨터 그래픽 2%의 순서와는 조금 다른 결과다.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 경우 인터뷰의 비율이 31.5%로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13.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이 된다. 이는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제주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신뢰감 있게 다루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와 증인의 멘트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접 말하기와 인터뷰 부분을 합치면(표-4참조) 46.7%에 해당되는데 이는 KBS<역사스페셜>이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진행자의 직접 말하기와 다수의 짧은 인터뷰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경우 인터뷰의 비율은 13.8%로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고자료, 접사 등의 비율이 49.1%에 달하는데 탐라순력도 그림 하나

하나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결과 2>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탐라순력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은 제작주체에 따라 인터뷰에 있어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고자료 등의 비율에 있어서도 1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인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와도 큰 유사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 3)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비교 분석

끝으로 ‘꽃자왈’ 과 관련된 5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을 산출한 값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프로그램명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 (KBS제주)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 (KBS제주)		물의 숲 꽃자왈 (EBS)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 (JIBS)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 (JIBS)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시간 (분' 초')	%
전문가 인터뷰(a)	10' 7"	17.3%			14' 7"	32.8%				
증인 인터뷰(b)	49"	1.4%	6' 22"	11.4%	48"	1.9%	6' 56"	14.2%	3' 20"	6.7%
실촬영 화면 (야외 촬영)	42' 13"	72.3%	46'	82.5%	27' 12"	63.3%	40' 41"	83.4%	46' 29"	93.3%
고자료, 접사, 스틸사진, 영상자료 등	2' 17"	3.9%	50"	1.5%						
컴퓨터 그래픽	3' 4"	5.3%	2' 31"	4.5%	44"	1.7%	1' 3"	2.2%		
합계	58'23"	100%	55'45"	100%	42'59"	100%	48' 46"	100%	49'50"	100%

먼저 KBS제주에서 제작한 두 편의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을 살펴보면 인터뷰가 각각 18.7%(전문가 인터뷰 17.3% + 증인 인터뷰 1.4%)와 11.4%로 평균값은 15.2%가 나왔고, 실촬영 화면이 각각 72.3%와 82.5%로 평균값은 77.3%가 나왔다. 이밖에 고자료 접사 등은 각각 3.9%와 1.5%로 평균값은 2.7%로, 컴퓨터 그래픽은 각각 5.3%와 4.5%로 평균값은 4.9%가 나왔다. 이에 비해 「물의 숲, 꽃자

왈(EBS)」의 경우, 인터뷰가 34.7%, 실촬영이 63.3%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JIBS의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의 경우 인터뷰가 10.5%, 실촬영이 88.4%, 컴퓨터 그래픽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물의 숲, 꽃자왈(EBS)」의 경우 실촬영 부분의 비율은 63.3%로 가장 낮은 반면 제주에서 제작된 나머지 프로그램의 실촬영 비율이 70~90%대로 중앙과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제작된 「물의 숲, 꽃자왈(EBS)」과 같은 계절에 제작된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과 비교해 보면 실촬영은 82.5%(겨울에도...)-63.3%(물의 숲...), 인터뷰는 11.4%(겨울에도...)-34.7%(물의 숲...)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앙방송에서 제작할 경우 지역방송에서 제작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리적 접근성 외에도 제작자의 제작 및 편집 성향이나 프로그램의 주제와 같은 요소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촬영 부분을 중시하고 또 실촬영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꽃자왈’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은 제작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작주체의 지리적 위치와 제작자의 편집 성향 및 제작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며 특히 지리적 접근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연구문제1>의 결과를 요약하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요소는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과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서 형식적 구성 요소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가 제작주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 궁극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지닌 특성과 제작자의 제작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의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 구성 요소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의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작주체의 지리적 위치가 실촬영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지리적 위치 뿐 아니라 개별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자의 제작의도와 프로그램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 2.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분석

### 1) '제주 고대사(古代史)'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제주고대사'는 제주의 선사시대 역사에서부터 탐라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일컫는다. 동시대 한반도의 역사와 달리 탐라국은 이와 관련된 문헌이 전해지지 않아 여지껏 베일에 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고대사'를 다룬 프로그램으로는 KBS <역사스페셜> 제57회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와 JIBS의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탐라왕국 재조명(1부)」와 송년특집 다큐멘터리 「탐라왕국 재조명(2부)」가 있다.

우선 각각의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구조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시퀀스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sup>14)</sup>

<기>부분에서 '동문선'이라는 역사서의 기록을 소개하며 제주가 고려시대에도 외국이었음을 말한다(시퀀스1).

<승>부분에서는 삼양동 선사유적지를 발굴현장을 찾아간다. 이를 통해 제주에도 고대 왕국이 있었고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거주지만도 250여개이며 시설물도 제법 규모있게 갖춰진 곳임을 설명한다. 여기서 제주문화가 육지보다 더 선진적일 가능성을 인터뷰를 통해 짚막하게 제시한다(시퀀스3). 또한 장신구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당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었고 삼양동 뿐 아니라 용담동, 외도동, 광지리에도 마을 존재했고 탐라국 초기 많은 인구가 제주에 거주했음을 설명한다(시퀀스4). 그리고 삼양동 선사 유적지와 송국리 마을 유적을 비교함으로써 제주와 한반도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말한다. 각종 토기들을 제시하며 당시 제주는 열려있는 바닷길을 이용하여 육지부의 철기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설명한다(시퀀스6).

<전>부분에서는 용담동 철제무기를 통해 제주에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있었음을 알리고(시퀀스8), 탐라국 건국이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탐라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을나'는 북방 맥족이 사용했던 용어라는 인터뷰가 삽입된다(시퀀스9). 시퀀스11에서는 해상왕국이었던 제주의 교류에 대해 소개한다. 제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재력을 축적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해상왕국의 수단이었던 제주의 전통배인 덕판배를 소개하고 이를 복원해 바다에 직접 띄워본다(시퀀스

14) 이야기 내용 관련, 시퀀스 분석의 상세 내용은 부록 참조

13).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백제와의 관계, 전복진주 교역을 통한 고구려와의 관계 등을 소개하고, 이들과 위상을 같이 했던 제주의 역사를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 소개한다(시퀀스15).

<결>부분에서는 탐라국이 고려에 편입되고 조선시대 왕권을 반납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새롭게 알려진 탐라의 역사 이야기를 마무리 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은 <의문제기→설명(의문해결)>이라는 구도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의 반복에서 다양한 의견과 근거, 유물 등이 제시되면서 ‘설명’ 부분의 내용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식-1>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의문제기1) 탐라국의 실체 드러남 → 설명/근거) 삼양동 유적지 →
의문제기2) 육지부와의 관계는? → 설명/근거) 송국리 유적지 →
의문제기3) 한반도와 교류했던 이는? → 설명/근거) 용담동 유적지 철기 유물 →
의문제기4) 탐라국의 교역과 수단은? → 설명/근거) 당나라 자기, 중국 화폐, 덕판배 →
의문제기5) 해양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 설명/근거) 황룡사 9층탑

다음으로 「탐라왕국 재조명 1부-탐라인의 뿌리를 찾아서(JIBS)」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시퀀스별로 살펴보자. <기>부분에서 제주의 삼성신화를 소개하며 ‘과연 삼성혈의 세 성인이 탐라를 건설한 탐라인의 뿌리였을까’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승>부분에서는 고산리 신석기 유적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선사연표가 다시 쓰여졌음을 강조한다(시퀀스2). 그리고 고산리 화살촉이 단양 수양개 유적과 비슷하나 이는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시퀀스3) 고산리 유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민무늬토기로 러시아 아무르강 지역에서 발견되는 양식이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다(시퀀스4). 1만 년 전 고산리는 한반도 보다 훨씬 앞선 독자적 문화 구축, 고산리 문화의 이동 경로는 제주인의 기원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시퀀스5).

<전>부분에서 제주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간의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고산리 유적과 아무르강 유역을 공동 발굴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문화가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시퀀스6). 시퀀스7에서는 공동연구 및 발굴과정을 소개하고 아무르강 유적이 한반도에서는 제주에서만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는 유물이 발견되는 궤적층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시퀀스8). 시퀀스9에서는 아무르강 일대 거주인들은 서구인이 아니라 고아시아족으로 서해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을 당시 강줄기를 따라 제주로 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관련 인터뷰를 삽입한다. 시퀀스10에서는 북제주군 북촌리 바위그늘집자리 유적과 새로운 형태의 토기 등장을 소개하고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집단의 것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유적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해안 일대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시퀀스11). 또한 제주시 용담동 철기집단의 유물과 상모리 집단의 석곽묘를 소개하고 이들이 제주의 선주민들과 함께 천년왕국 탐라를 형성하게 됐음을 설명한다(시퀀스12).

<결>부분에서는 탐라국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제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제주의 역사를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 역시 <의문제기→설명(의문해결)>이라는 구도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의 반복에서 다양한 의견과 근거가 제시되는 구조는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식-2> 「탐라왕국 재조명 1부(JI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의문제기1) 탐라인의 뿌리는? → 설명/근거) 고산리 유적 → 의문제기2) 아무르강 문화와의 관계는? → 설명/근거) 아무르강 유물, 궤적층, 인터뷰 → 의문제기3) 또 다른 집단은? → 설명/근거) 북촌리 유적, 상모리 유적 → 의문제기4) 탐라국의 건국은? → 설명/근거) 용담동 유적, 상모리 석곽묘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는 <기>부분에서 역사서 '당회요'의 기록을 통해 제주가 백제, 신라, 일본과 함께 한반도 일대를 대표하는 국가였음을 말한다.

<승>부분에서 산지항 공사에서 기원전후의 중국화폐 21점이 출토됐고 이를 통해 탐라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역 기착지였음을 설명한다(시퀀스 2).외부와 교역을 통해 탐라국이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삼양동 유적지 팔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시퀀스3).

<전>부분에서는 탐라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용담동 유적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유물이 금관가야의 것과 흡사한 것에 주목, 당시 탐라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추측한다(시퀀스4). 그리고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를 소개하고 이는 세 개의 부족사회가 한 세력에 통합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삼성신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문제제기 한다(시퀀스5). 또한 외도동 유적의 우물과 난방시설 등을 소개하며 당시 제주의 문명이 선진적 수준이었음을 강조한다(시퀀스6). 이어서 탐라국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과 함께 탐라국의 외교 내용,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한 탐라국의 위상을 설명한다(시퀀스9). 시퀀스10에서는 탐라국의 군사에 대해 설명하고 인접한 백제, 신라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탐라국의 백제부흥 운동가담 사실과 일본과의 교류, 실질적인 종말과정을 설명한다(시퀀스11). 또한 시퀀스 12에서는 탐라국의 역사문헌이 전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목관아 화재 사건을 소개한다. 그리고 고대왕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단서인 고분이 없다는 점과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삽입했다.

<결>부분에서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 역시 1부의 연장선상에서 <의문제기→설명(의문해결)>이라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식-3> 「탐라왕국 재조명 2부(JI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의문제기1) 제주는 해상왕국이었음 → 설명/근거) 중국 화폐, 삼양동과 용담동 유적지 → 의문제기2) 탐라국의 형성은? → 설명/근거) 영주지, 외도동 유적지, 가파도 고인돌 → 의문제기3) 탐라국의 위상은? → 설명/근거) 삼국사기, 황룡사9층탑, 당회요 → 의문제기4) 탐라국 역사문헌/고분 부재의 이유는? → 설명/근거) 목관아 화재, 인터뷰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 보자. 단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 편의 프로그램의 <기><결>부분은 연구문제3>과 함께 내레이션을 통해 보다 상세히 비교하기로 하고 <승><전>부분의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와 「탐라왕국 재조명 2부(JIBS)」의 시대가 유사하므로 두 프로그램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승>부분에 있어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는 삼양동 선사유적지 발굴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삼양동 선사 유적지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제주문화가 육지보다 더 선진적일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단 인터뷰를 통해 짧막하게 소개되는데 반해 「탐라왕국 재조명 2부(JIBS)」의 <전>부분 시퀀스6에서는 외도동 유적과 함께 당시 제주의 문화가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도 없으며’ ‘당시 생활수준이 높았고’ ‘선진문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비교된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지역 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와 관련 긍정적인 부분에 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했음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의 경우 <승>부분에서 산지포에서 출토된 기원전후의 중국화폐를 통해 제주가 해상교역이 기착지였음을 설명한다. 또한 삼양동 유적지를 통해 당시 사회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존재했음을 설명한다.

<전>부분에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는 탐라국과 한반도 육지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충남 부여의 송국리 마을 유적을 찾아간다. 또한 육지부와 교

류해은 집단의 흔적으로 제주시 용담동 유적의 철제무기에 주목하고 철제무기를 통해 탐라국 건국과 한반도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탐라국의 전성기, 해상왕국의 수단이 됐던 제주의 덕판배를 소개한다. 즉, 육지부와의 교류를 통해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탐라국의 흔적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다.

반면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는 해상왕국 탐라국의 위상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퀀스4에서는 제주시 용담동 유적지의 철제장검을 소개한다.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에서 철제장검을 통해 탐라국과 한반도 지역의 교류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데 반해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에서는 철제장검을 통해 ‘삼한지역의 장과 버금가는 세력이 탐라에 존재했다’ 추측의 인터뷰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의 맹주였고 탐라는 금관가야에 버금가는 독립소국이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한 시퀀스10, 11을 통해 탐라국이 백제의 속국에서 신라의 속국으로, 그리고 백제부흥운동에 가담하고 고려시대 탐라군으로 강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에서 스튜디오 클로징 멘트로 간단하게 탐라국이 조선왕조에 왕권을 반납하여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의 시퀀스12도 눈여겨볼만 하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상왕국 탐라국에 대한 역사문헌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탐라국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자료들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소실과 관련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고대국가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단서인 고분이 탐라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 역시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이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포함시켰다.

전반적으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는 탐라국의 실체를 외부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는데 비해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은 내부(제주)에서 각종 유물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근거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탐라국의 역사와 위상을 극대화해 지역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베일에 쌓인 탐라국의 역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설정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의도는 「탐라왕국 재조명 1부-탐라의 뿌리를 찾아서(JIBS)」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승>부분에서 우리나라 선사연표를 다시 쓰게 한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소개하고 <전>부분에서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의 문화가 제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북제주군 북촌리 바위그늘집자리유적, 남제주군 상모리 유적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온 집단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기원전후 제주로 들어온 여러 철기집단들이 제주의 선주민들과 함께 천년왕국 탐라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즉, 2부에서는 탐라국의 유적을 통해 탐라국의 존재를 보여준다면 1부에서는 탐라국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 탐라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시기 제주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기원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 고대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내용의 큰 흐름은 <의문제기>에서 <설명과 근거제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제작주체에 따른 차이점은 분명히 나타난다. 중앙방송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제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역방송에서는 ‘제주의 역사를 찾아가려는 노력’과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려는 의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방송에서는 ‘사실’ 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성을 보여주는 반면 지역방송에서는 ‘사실’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북돋우는 내용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지역방송은 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탐라순력도’는 조선시대인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주목사로 도임했던 가을 20여 일에 걸쳐 관내순시를 하었는데 이때의 순시 장면과 그 후의 행사들을 그려놓은 화첩이다. 이형상 목사의 후손에 의해 대대로 보관돼 오다 1974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후 보물 제652-2호로 지정된다.

‘탐라순력도’를 다룬 프로그램은 KBS<역사스페셜> 제85회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와 JIBS 특집다큐멘터리 <조선왕조실록 제주사 재조명-제6편>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이 있다.

먼저 각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다(KBS)」는 <기>부분에서 탐라순력도의 보존처리 모습을 공개하며 탐라순력도에 3백 년 전 제주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음을 말한다.

<승>부분에서는 ‘순력’의 뜻과 탐라순력도의 제작시기를 설명하고(시퀀스2), 탐라순력도의 보존현장을 소개한다(시퀀스3). 그리고 41장의 그림 중 제주의 성(城)을 그린 그림이 12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목사가 성의 시설과 군대를 점검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임을 설명한다(시퀀스4). 시퀀스6에서는 탐라순력도가 보관돼 있던 경북 영천을 찾아 이형상 목사의 생애, 2백 여 권의 저서, 학문 경향에 대해 소개한다.

<전>부분에서는 제주조점(濟州操點), 별방조점(別防操點) 소개와 함께 조점(操點)의 뜻 설명하고 한라장축을 통해 3개 읍성과 9개 진성 설명하며 독특한 축성(築城) 방식도 소개한다(시퀀스8). 그리고 탐라순력도에서 발견된 군적부(軍籍簿)를 통해 제주의 군사편제 소개하고 제주의 38개 연대와 25개 봉수를 소개한다. 또한 제주의 봉수대 연락체계를 설명하고 한라장축을 통해 제주는 3개 읍성, 9개 해안진성, 63개의 감시소가 있는 군사요새였음을 강조한다(시퀀스9). 시퀀스11에서는 정의장사, 관덕정, 솔대왓 현장을 통해 활쏘기 훈련 설명하고 교래대렵(橋來大獵)을 통해 사냥과 기병 훈련 설명한다. 또한 목장 지도를 소개,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전국의 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주마임을 확인하고 한라장축을 통해 도내 10소장(所場)과 63곳의 자장(字場) 설명한다(시퀀스13). 또한 현마공신 김만일 소개하고 목사의 업무 설명하며 제주는 당시 군마(軍馬)의 최대 생산지였음을 강조한다(시퀀스14). 그리고 감귤봉진을 통해 한약재용 귤껍질 진피와 청피를 소개하고 남환박물관 기록을 통해 공과원을 소개한다(시퀀스16)

<결>부분에서는 제주가 해안방어를 철저히 했던 군사요새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탐라순력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을 말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은 ‘제주 고대사’관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의문제기→설명(의문해결)>이라는 구도를 반복하고 있다. 단지 <의문제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식-4>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의문제기1) 3백년 전 제주의 모습은? → 설명/근거) 인터뷰와 한라장축, 경북영천 → 의문제기2) 제주는 군사적으로 어떤 지역? → 설명/근거) 제주조점, 별방조점, 군적부 → 의문제기3) 당시 제주와 제주마에 대해? → 설명/근거) 목장지도, 한라장축 → 의문제기4) 진상과 제주굴에 대해? → 설명/근거) 감귤봉진, 남환박물

다음은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기> 부분에서 대구효성여대 학보를 인용하며 탐라순력도가 세상에 알려진 시기와 기사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승> 부분에서는 제주일보의 옛 기사를 통해 제주에 처음 알려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뤄진 탐라순력도와 제주인들과의 첫 만남을 소개한다(시퀀스2). 시퀀스3에서는 탐라순력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한다. 탐라순력도의 구성과 ‘순력(巡歷)’의 뜻, 그리고 이를 제작한 이형상 목사에 대해 설명한다.

<전> 부분에서는 탐라순력도의 41개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방어관련임을 밝히고 이는 제주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였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한라장축을 통해 제주 해안의 9개 방호소를 설명한다(시퀀스4). 그리고 별방시사(別防試射)를 통해 활쏘기 행사 설명하고 활쏘기와 관련된 천제연 폭포 암벽의 시(詩)를 소개한다(시퀀스5). 시퀀스6에서는 교래대렵(橋來大獵)을 통해 사슴, 돼지 등의 진상(進上)을 소개하고 공마봉진(貢馬封進)을 통해 조선조 당시 제주마의 가치를 확인한다. 시퀀스7에서는 감귤봉진(柑橘封進)을 통해 감귤을 진상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 굴림풍악(橘林風樂), 제주조점(濟州操點) 등을 통해 과수원 내부와 과수원의 위치를 설명한다. 이어서 제주양로(濟州養老), 정의양로(旌義養老), 대정양로(大靜養老)를 통해 조선시대 경로효친 사상 설명하고(시퀀스8) 제주양로의 경로잔치를 통해 당시 궁중무용이 제주까지 전파됐음을 추측한다(시퀀스9). 시퀀스10에서는 제주목관아 복원 사업을 통해 사료로서의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조명하고 시퀀스11에서는

식생을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설명한다. 또한 한라장축을 통해 지도로서의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설명하고(시퀀스12) 역원근법과 등측도법을 소개하며 탐라순력도의 회화적 가치를 설명한다(시퀀스13). 그리고 탐라순력도보다 7년 먼저 제작된 탐라십경도(耽羅十經圖)를 소개하며 탐라순력도는 탐라십경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시퀀스14). 마지막으로 시퀀스15에서는 탐라순력도가 1979년 보물로 지정되고 98년 제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결>부분에서는 탐라순력도는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임을 강조하고 탐라순력도를 통해 미래 제주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할 시기임을 말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 역시 <의문제기→설명(의문해결)>이라는 구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문제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식-5>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의문제기1) 탐라순력도란? → 설명) 순력의 뜻, 탐라순력도의 구성 → 의문제기2) 탐라순력도의 내용은? → 설명/근거) 군사, 진상, 양로 → 의문제기3) 탐라순력도의 가치는? → 설명/근거) 사료, 식생, 지도, 회화적 가치 → 의문제기4) 탐라순력도의 전신은? → 설명/근거) 탐라십경도 추측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자.

우선 각 프로그램의 <승>부분을 비교해 보면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경우 <기>부분이 끝난 후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에서는 <기>부분과 <승>부분 사이에서 시퀀스 2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시퀀스 2에서는 탐라순력도와 제주인들과의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당시 도내 유일한 일간지이었던 제주신문 기사(1974년 11월 2일)를 소개한다. 제주신문의 기사에는 탐라순력도를 보기 위해 경북 영천을 직접 다녀왔던 도내 한

향토사학자의 “탐라순력도는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화첩으로 제주 역사 연구에 없어서 안 될 자료”라는 인터뷰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이처럼 제주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은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 경우 탐라순력도가 제주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이며, ‘제주인에 의한 시각’을 통해 탐라순력도를 조명하겠다는 제작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즉, 탐라순력도가 ‘우리 나라의 역사 사료’이기 전에 18세기 제주를 담아낸 ‘제주의 역사 사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탐라순력도는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화첩으로 제주 역사 연구에 없어서 안 될 자료”라는 제주 향토사학자의 인터뷰 내용의 인용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탐라순력도가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 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이형상 목사 연구 발표회가 열렸는데 이 내용도 함께 소개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당시 연구 발표회에 참가했던 홍순만 향토사학자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는데 홍순만씨는 탐라순력도를 처음 보았을 때를 회고하며 “제주의 모습을 세세히 기록한 것에 대해 감동했다”고 당시의 소감을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시퀀스2에서는 탐라순력도와 제주인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탐라순력도가 제주에 부임한 제주목사에 의해 만들어진, 즉 중앙정부를 위해 만들어진 사료라 할 수 있지만 제주인들은 이를 제주의 사료로 여기고 있으며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부분에 있어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경우 탐라순력도의 내용 가운데 ‘군사’-‘제주마’-‘진상’의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군사’와 관련된 부분이 5개의 시퀀스, ‘제주마’와 관련된 부분이 3개의 시퀀스, ‘진상’과 관련된 부분이 2개의 시퀀스를 이룬다. 이는 탐라순력도의 41장의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12장이 군사와 관련된 그림이며 이를 통해 당시 제주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군사 점검’이며 ‘제주는 군사요새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자 주제인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에 충실한 배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전>부분에서는 ‘군사’-‘제주마’-‘진상’은 물론 ‘경로효친 사상’-‘무용’등으로 배열한다. ‘군사’-‘제주마’-‘진상’은 탐라순력도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이며 제주목사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점에서 가장 앞

부분에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 부분에서는 예로부터 제주가 장수 노인이 많은 섬이었다는 점을 탐라순력도의 기록-100세가 넘는 노인이 3명 참석했다-을 통해 입증한다. 또한 경로잔치의 배치와 춤을 통해 궁중무용이 제주에까지 전파됐음을 확인한다. 이는 ‘중앙의 관점에서 제주는 어떤 섬이었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들의 관점에서 18세기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나’에 가까운 내용 구성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퀀스 10에서는 탐라순력도가 갖는 가치에 대해 직접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1991년부터 12년간 진행된 제주목관아 복원사업에서 목관아 건물양식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탐라순력도가 귀중한 사료가 됐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서 복원된 제주목관아의 외대문과 골림당, 연희각의 실제 외경과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오버랩(overlap) 처리하여 복원과정에서 탐라순력도가 귀중한 사료가 됐음을 시청자들이 실감케 한다. 또한 시퀀스 11에서는 탐라순력도는 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식물식생을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여기에 탐라순력도가 여러 가지 식물 식생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으며 그 기록 자체도 신뢰할 만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탐라순력도는 18세기 한라산 일대의 식생을 연구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군사요새’의 증거에 초점을 맞춘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와 비교해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탐라순력도’와 관련된 두 프로그램에서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명확히 드러났다. 중앙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군사요새 제주’라는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탐라순력도의 그림에서 ‘군사’와 ‘진상’ 등의 테마에 집중해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군사요새 제주’가 아닌 탐라순력도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8세기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상세히 유추해 나가고 있다. 즉, 탐라순력도의 모든 내용에 대해 세밀히 접근하고 탐라순력도 자체의 가치를 여러 가지 분야로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탐라순력도와 탐라십경도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 탐라순력도의 기원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및 전개 비교 분석

‘곶자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제주만의 독특한 숲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굳은 바위 위로 생겨난 숲을 말한다. 곶자왈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며 바다와 한라산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곶자왈 일부 지역에 대한 난개발 문제로 제주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곶자왈’을 다룬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EBS<하나뿐인 지구> 제858회 「물의 숲, 곶자왈」, KBS<환경스페셜>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 「원시의 숲, 교래곶자왈은 사라지는가」, JIBS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땅, 곶자왈의 사계(四季)-2부작」 모두 세 가지 제작 주체, 4편의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각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KBS제주)」의 경우 도입부인 <기>부분에서 흰눈으로 가득한 한라산을 보여준 뒤 이와 대조적으로 한 겨울에도 푸른 자태를 유지하는 곶자왈의 신비로운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다.

<승>부분에서는 노루들이 겨울나기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곶자왈을 소개하고(시퀀스2), 돌투성이 땅이어서 노루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곶자왈의 특성을 설명한다(시퀀스3). 그리고 시퀀스4에서는 곶자왈이 생성된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곶자왈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식으면서 바위지대를 만들어 내고 그 위로 부엽토가 쌓이고 나무가 자라 만들어진 숲이라 설명하고 있다.

<전>부분에서는 곶자왈에 살아가는 노루와 그 흔적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곁들인다(시퀀스5). 그리고 특수한 지질과 기후조건으로 곶자왈에 서식하는 희귀한 식물상을 특히 고사리류를 중심으로 소개한다(시퀀스6). 시퀀스7에서는 낮에는 바다에 있다가 밤에 선홍곶자왈로 이동하는 원앙새와 곶자왈에 서식하는 열여덟 마리의 독수리를 통해 곶자왈이 숲과 바다, 습지와 초원을 잇는 생태계의 축임을 설명한다. 이어서 시퀀스8, 9, 10에서는 연속해서 곶자왈 파괴 문제를 다룬다. 먼저 시퀀스8에서는 교래곶자왈의 노루 밀렵문제를 제기하고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통해 로드킬로 희생되는 노루를 소개한다. 또한 곶자왈에 들어설 37개의 골프장과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28곳의 골재채취장을 통해 곶자왈 파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

기한다. 그리고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실험을 통해 꽃자왈이 지하수의 함양원임을 확인하고 꽃자왈 파괴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다(시퀀스9). 끝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지하수등급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하수의 함양원이 되는 선홍꽃자왈의 용암동굴을 소개한다.

<결>부분에서는 꽃자왈의 개발문제와 함께 꽃자왈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은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도식-6>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문제제기) 겨울에도 푸른 이유? → 설명/근거) 인터뷰 → 설명) 꽃자왈의 지질 → 설명) 꽃자왈의 동식물 → 문제제기) 꽃자왈의 개발, 파괴문제 → 설명/근거) 용암동굴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KBS제주)」의 경우 도입부인 <기>부분에서 교래곶자왈의 건강하고 풍성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다. 꽃자왈은 중산간 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제주만의 숲으로 자연 그대로를 지켜가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멘트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

<승>부분에서 일본에도 꽃자왈과 비슷한 공간이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일본인 학자의 말을 통해 꽃자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가늠하게 한다(시퀀스2). 그리고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꽃자왈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꽃자왈은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라 표현을 한다(시퀀스3). 또한 꽃자왈 특유의 지질학적 환경으로 국내 양치류의 80%가 서식하고(시퀀스4), 난초는 물론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는 곳임을 보여준다(시퀀스5).

<전>부분에서 교래곶자왈이 리조트와 골프장으로 개발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노루 등의 동물은 서식할 수 없고 환경부 멸종위기종도 없으며 녹지자연등급도 7등급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시퀀스7). 그러나 시퀀스8에서부터 이에 대한 반박에 들어가는데 먼저 전문 연구팀의 조사결과 녹지자연도에서 교래곶은 8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또한 종다양성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희귀종인 붓순나무와 가시딸기의 군락지도 발견해낸다. 시퀀스9에서는 곶자왈의 가치를 환산한 결과 수조원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곶자왈에서 양하를 얻고 노루와 꿩을 사냥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곶자왈에는 노루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오소리굴을 찾아내기도 하고 멸종위기종 새홀리기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밝혀낸다(시퀀스10). 그리고 연간 900만톤의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교래곶자왈이 개발되면 28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개발업체 측에서는 곶자왈의 나무를 옮겨 심을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반박한다(시퀀스11).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식-7>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KBS제주)」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설명) 곶자왈은 제주만의 숲 → 설명/근거) 인터뷰 → 문제제기) 교래곶자왈의 개발, 환경영향평가 → 설명/근거) 곶자왈의 생태, 가치 → 문제제기) 지하수, 식생옮겨심기 → 설명/근거) 인터뷰

「물의 숲, 곶자왈(EBS)」의 이야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분에서는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 유독 눈이 쌓이지 않는 숲 곶자왈의 신비로움을 소개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승>부분에서는 열대우림을 연상시키는 희귀한 숲 꽃자왈을 소개하고 그 생성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설명한다(시퀀스2). 그리고 습골을 통해 한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시퀀스3) 실제 습골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이를 증명하고 꽃자왈 내부 습골의 구조를 설명한다(시퀀스4).

<전>부분에서는 지하수 함양원으로서의 꽃자왈의 기능을 설명하고 꽃자왈을 벗어나 제주 특유의 지하수인 용천수를 설명한다(시퀀스5). 그리고 지하수 함양원이라는 꽃자왈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용천수의 수량과 오염된 용천수의 수질을 직접 측정하여 지하수 오염의 문제를 제기한다(시퀀스6). 시퀀스7에서는 용천수 오염의 원인을 추적해 채석장과 골프장, 축산시설 등으로 꽃자왈이 훼손된 현장을 고발한다. 또한 선홍꽃자왈 역시 개발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서 시퀀스8에서는 꽃자왈 개발을 허가한 지자체의 입장을 소개하고 꽃자왈 용암과 빌레 용암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빌레 용암 역시 지하수를 함양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선홍꽃자왈 내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인 튜플러스 지형을 소개한다.

<결>부분에서는 선홍꽃자왈 내부에서 꽃자왈 지대를 찾는 과정과 함께 꽃자왈과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마무리 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은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식-8> 「물의 숲, 꽃자왈(E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설명) 꽃자왈의 지질 → 설명) 꽃자왈의 생태 → 설명) 꽃자왈과 지하수 → 설명) 제주인과 지하수 → 문제제기) 지하수의 오염문제 → 설명(근거) 꽃자왈 훼손 → 문제제기) 꽃자왈 개발, 훼손문제 → 설명(근거) 빌레용암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의 경우 <기>,<승>,<전>,<결>의 구성보다는 1부에서는 겨울과 봄, 2부에서는 여름과 가을, 각각 두 계절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겨울 없는 숲’(JIBS)」의 이야기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기>부분에서 한 겨울 한라산이 흰 눈으로 가득하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지만 꽃자왈 내부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자연의 신비함으로 시작한다.

<승>부분은 꽃자왈의 겨울을 담아낸다. 먼저 꽃자왈의 버섯을 소개하는데 한 겨울에도 다양한 버섯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 여름버섯까지 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시퀀스2). 그리고 꽃자왈 밖 다른 지역에서는 봄에 산란을 시작하는 제주도통농이 꽃자왈 내부에서는 한겨울에 산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시퀀스3). 시퀀스4에서는 이처럼 꽃자왈이 한겨울에도 따뜻한 이유를 숨골 때문이라 보고 숨골에 대한 지질학적 설명과 함께 숨골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직접 측정해 본다. 그리고 숨골로 이뤄진 꽃자왈이 생성된 지질학적 배경과 제주도내 꽃자왈의 분포, 지하수 함양원으로서의 기능을 소개한다(시퀀스5). 또한 한라산과 바다를 잇는 생태계의 연결 통로가 되는 꽃자왈의 기능을 소개하고 꽃자왈 내부의 동물과 식물의 분포를 설명한다(시퀀스6).

<전>부분에서는 돌투성이 땅으로 버려진 꽃자왈이 저렴한 토지가격과 조정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악용하여 꽃자왈이 훼손돼 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꽃자왈 파괴 현황을 알린다(시퀀스7). 시퀀스8에서는 꽃자왈 훼손을 막고 제주도민 스스로 꽃자왈을 지켜나가자는 꽃자왈 공유화운동을 소개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어서 꽃자왈에 봄이 움을 알리고 봄꽃과 함께 북방산개구리의 산란, 오색딱따구리의 교미 장면을 보여준다(시퀀스9). 그리고 오색딱따구리가 새끼를 낳고 오색딱따구리 가족이 누룩뱀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소개한다(시퀀스10). 봄이 무르익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애벌레와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와 도롱뇽 유생을 보여준다(시퀀스11).

<결>부분에서는 꽃자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꽃자왈 공유화 운동 참여를 독려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 역시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식-9>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설명) 꽃자왈의 버섯, 제주도롱뇽 → 설명) 꽃자왈의 숨골 → 설명) 꽃자왈의 지질 → 설명) 꽃자왈의 생태계 → 문제제기) 꽃자왈 훼손 문제 → 설명/근거) 꽃자왈 공유화 운동 → 설명) 꽃자왈의 꽃 → 설명) 꽃자왈의 양서류, 오색딱따구리

다음으로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숲 속의 대향연'(JIBS)」의 이야기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기>부분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보호종 물장군 알의 집단 산란 장면을 보여주며 꽃자왈의 건강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준다.

<승>부분에서 꽃자왈의 여름을 소개하는데 먼저 멸종위기종 맹꽂이가 저지꽃자왈에서 집단 산란하는 장면을 통해 꽃자왈의 청정함을 알린다(시퀀스2). 그리고 습기로 가득한 꽃자왈을 상징하는 멸종위기, 희귀난초를 소개하고 암수한몸인 달팽이의 독특한 교미장면을 보여준다(시퀀스3). 시퀀스4에서는 작은 곤충들이 벌이는 독특한 교미모습을 공개하고 멸종 위기종인 애반딧불이가 저지꽃자왈에 집단 서식하는 현장을 소개하며 꽃자왈이 청정의 숲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꽃자왈 내부 습지를 소개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서곤충과 함께 멸종위기 보호종 물장군의 포식장면을 보여준다(시퀀스5). 또한 습기로 가득한 숲 꽃자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버섯들을 소개하고(시퀀스6) 버섯들이 피어나자 이를 먹는 달팽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나는 독버섯을 맛있게 먹는 달팽이의 모습도 공개한다(시퀀스7). 시퀀스8에서는 알을 낳기 위해 물가를 찾은 청개구리가 꽃자왈의 포식자 쇠살모사에게 잡혀 먹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부분에서는 태풍 나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간다. 태풍 나리의 피해는 기록적인 강수량에 의한 것이며 이는 꽃자왈 훼손 등 중산간일대의 난

개발에 의해 발생한 재난이라 분석한다(시퀀스9). 시퀀스10에서는 꽃자왈의 가을 열매를 소개하고 이들이 동물의 몸이나 바람에 의해 퍼져나가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겨울잠을 준비하는 꽃자왈의 동물들을 보여주며 마무리한다.

<결>부분에서는 꽃자왈의 모습이 제주인들과 닮아있다는 표현과 함께 꽃자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 역시 1부와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식 구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식-10>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JIBS)」의 이야기 구성도

이야기 구성
설명) 생명의 시작(물장군 부화, 맹꽁이 산란) → 설명) 꽃자왈의 휘귀 생물 → 설명) 꽃자왈의 습지와 수서곤충 → 설명) 꽃자왈의 청소부와 포식자 → 문제제기) 태풍 나리의 피해 → 설명(근거) 꽃자왈 훼손 → 설명) 꽃자왈의 열매 → 설명)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

그렇다면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구조를 상호 비교해 보자. 우선 각 프로그램의 구조는 공통적으로 <설명→설명>, <문제제기→설명>이라는 두 가지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함을 <설명>의 연속을 통해 보여주다가 자연과 파괴와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환경 다큐멘터리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작주체에 따른- 중앙에서 제작한 경우(EBS)와 제주 지역에서 제작, 중앙으로 방송하는 경우(KBS제주), 제주 지역에서 제작, 제주 지역에서 방송하는 경우(JIBS)-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꽃자왈의 독특한 지질과 풍성한 생태, 그리고 개발로 인한 꽃자왈의 파괴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자연과 생태계의 중요성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

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들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꽃자왈이 겨울에도 푸른 숲이라는 내용(「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시퀀스 1,2, 「물의 숲, 꽃자왈(EBS)」-시퀀스 1,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시퀀스 1) ▶꽃자왈의 생성 과정(「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시퀀스 4, 「원시의 숲, 교래꽃은 사라지는가(KBS제주)」-시퀀스 3, 「물의 숲, 꽃자왈(EBS)」-시퀀스 2,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시퀀스 5) ▶꽃자왈이 지하수의 함양원이라는 내용(「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시퀀스 10, 「원시의 숲, 교래꽃은 사라지는가(KBS제주)」-시퀀스 11, 「물의 숲, 꽃자왈(EBS)」-시퀀스 6,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시퀀스 5)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개별 프로그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꽃자왈의 특성을 쉽게 설명하는 한편 꽃자왈이라는 숲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피한 구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차별화된 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물의 숲, 꽃자왈(EBS)」의 경우 제목 그대로 꽃자왈과 제주의 지하수에 초점을 맞추었고, 「원시의 숲, 교래꽃자왈은 사라지는가(KBS제주)」은 개발로 위기에 처한 교래꽃자왈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은 겨울에 푸르름을 사랑하는 꽃자왈의 독특하고 신비한 식생과 생태를,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은 꽃자왈의 다양한 생태를 사계절에 걸쳐 조명한 특성이 있다.

각각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시의 숲, 교래꽃자왈은 사라지는가(KBS제주)」에서는 교래꽃자왈 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개발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 대해 대학 연구진과 동행취재하며 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구성이 돋보인다. 또한 꽃자왈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가 하면 꽃자왈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보호종을 통해 꽃자왈의 생태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하수 함양원으로서의 꽃자왈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는 <승>부분에서 한라산의 노루를 등장시

키며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꽃자왈은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로 노루의 먹이가 풍부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시퀀스 2,3). 또한 조천읍 앞 바다의 천연기념물 원앙이 야간에는 선홍꽃자왈 연못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을 통해 숲과 바다, 습지와 초원 사이에서 생태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꽃자왈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시퀀스 7). 그리고 꽃자왈 단면에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실험을 통해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꽃자왈의 지질적 특성을 증명해 보이는 등(시퀀스 10) 특색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물의 숲, 꽃자왈(EBS)」에서는 제주의 지하수, 즉 용천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림읍 일대의 용천수를 현장 취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함께 방송했다(시퀀스 6). 또한 ‘문수물’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는가 하면 문수물의 발원을 저지꽃자왈로 추정, 저지꽃자왈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문수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시퀀스 6,7). 또한 ‘꽃자왈 용암’과 ‘빌레 용암’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시퀀스 8), ‘튜플러스’ 지형을 소개(시퀀스 9)하는 등 꽃자왈 지질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룬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는 꽃자왈의 사계절의 모습을 2부작의 프로그램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1부에서는 겨울-제주도통농의 산란(시퀀스2), 봄-오색딱따구리 둥지(시퀀스 10), 2부에서는 여름-맹꽁이 산란(시퀀스 2), 곤충의 교미와 애반디(시퀀스 4), 습지의 수서곤충(시퀀스 5), 꽃자왈의 달팽이(시퀀스 7), 청개구리와 쇠살모사(시퀀스 8), 가을-꽃자왈의 열매와 씨앗(시퀀스 10)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1부에서는 겨울과 봄 사이에 꽃자왈 개발 문제와 꽃자왈 공유화 운동을, 2부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지역 침수 피해와 중산간 난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에서 ‘꽃자왈 공유화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꽃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화 운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시청자, 즉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환경 다큐멘터리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는 없지만 ‘곶자왈’ 보호와 보전이라는 공통의 주제 하에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교래곶자왈 개발 문제’- 「원시의 숲, 교래곶자왈은 사라지는가(KBS제주)」, ‘겨울에도 신비하고 풍성한 생태를 자랑하는 숲’-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KBS제주)」, ‘제주의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숲’- 「물의 숲, 곶자왈(EBS)」, ‘곶자왈 사계절의 모습과 생태’- 「생명의 땅, 곶자왈의 사계-2부작(JIBS)」로 나타나고 있다.

### 3. 내레이션 분석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기초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이고 해설적인 논술과 설명의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허구의 상상력으로 작품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화 형식으로 전달하려 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음,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내레이션을 통해 연출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 다큐멘터리는 기록필름에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통해 강력하고 분명하게 주제를 전달하는 설명적 양식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증언자나 전문가의 인터뷰를 삽입함으로써 내레이션을 통해 제작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보완하고 시청자들을 설득하게 된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줄거리와 이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점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레이션은 절대적 권위와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작의도와 주요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기>부분과 <결>부분의 내레이션 내용들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연출자들의 시각을 파악하는 가장 용이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1) ‘제주 고대사(古代史)’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비교 분석

앞서 이야기 내용 구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중앙의 관점과 지역의 관점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내레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주의 선사시대 역사에서부터 탐라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 KBS<역사스페셜>의 두 프로그램은 사회자의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직접 말하기 내용을 <기>부분 내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직접 말하기 내용을 <결>부분 내레이션으로 처리했다.

<표-7>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기>부분 내레이션

KBS	JBS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	탐라왕국 재조명 1부	탐라왕국 재조명 2부
<p>동문선에는 과거 시험에 얽힌 기록이 있다. 과거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이름은 고유. 놀랍게도 그는 빈공, 즉 외국인이었다. 고려시대 탐라는 외국이었던 것이다</p>	<p>제주시 삼성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제주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는다. 세 곳의 구멍에서 홀연히 솟아난 삼신인이 탐라의 역사를 연 시조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 세 차례 삼신인에 대한 제를 올린다. 특히 12월에 봉행되는 건시대제는 도민제라 하여 제주도지사가 직접 초헌관을 맡는다. 땅속에서 솟아났다는 삼성신화가 탐라국의 개국신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삼신인과 함께 천년왕국 탐라를 건국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p>	<p>중국 당나라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당회요(唐會要). 이 책에는 신라 문무왕 때인 서기 665년 탐라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중국 장수 유인궤가 신라와 백제, 탐라, 일본 네 나라의 사신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태산에서 열린 국가 제사에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7세기 중엽 탐라는 신라, 백제, 일본과 함께 한반도 일대를 대표하던 해상왕국이었던 것이다.</p>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서 탐라인이 수석을 했는데 그는 ‘외국인’으로 기록되었다는 문헌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 탐라(제주)는 외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내용-고려시대까지 제주는 외국이었다-을 통해 호기심을 끌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호기심에 의한 관심 유발은 「탐라왕국 재조명 1부-탐라인의 뿌리를 찾아서(JIB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탐라국 건국신화의 바탕인 삼성신화를 소개하고 이들 삼신인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그리고 ‘삼신인과 함께 천년왕국 탐라를 건국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에 비해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에서는 ‘당회요’ 문헌을 인용, 중국 태산에서 열린 제사에 신라와 백제, 탐라와 일본 네 나라의 사신이 참석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당시 탐라가 신라와 백제,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강조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한반도 일대를 대표하던 해상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당시 탐라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와 「탐라왕국 재조명 1부-탐라인의 뿌리를 찾아서(JIBS)」의 경우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반면 「탐라왕국 재조명 2부-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JIBS)」에서는 역사문헌 ‘당회요’을 기록을 통해 제주도내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내레이션이 구성돼 있다.

다음은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결>부분이다.

<표-8>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

KBS	JIBS	
	탐라왕국 재조명 1부	탐라왕국 재조명 2부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	만 년 전 고산리에 최초로 정착생활을 했던 사람들	베일에 가려졌던 천년왕국 탐라.
고려중엽 고려도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인 균현제를		

<p>실시하는데요, 이때 탐라국에도 고려의 관리가 파견 나와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탐라국의 자치 왕권은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태종 때 탐라왕 고봉례는 왕권을 반납하고 조선에 복속합니다. 이렇게 탐라국은 종말을 맞게 된 것이죠. 제주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천년 왕국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며 교류를 해왔던 나라, 탐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탐라의 모습인 것입니다.</p>	<p>이 선주민들은 제주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들의 수렵문화는 오랜 세월 제주의 주된 생활문화로 자리 잡으며 천년왕국 탐라까지 이어졌다. 외부와의 숭한 문화 충돌 속에서도 자신들의 수렵문화는 계속 명맥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탐라국을 건설한 철기집단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탐라국의 실체는 무엇이였을까?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서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 또한 무의미할 것이다.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p>	<p>최근 학계의 활발한 연구로 탐라국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특히 학계의 공동연구와 학자들 간의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학문간 대립과 학계의 갈등은 탐라국 역사 조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탐라국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워야 한다. 삼성신화의 해석을 둘러싼 일부 도민의 반발은 탐라국의 역사, 제주사 정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제주의 뿌리,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요,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국제자유도시,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주목받는 제주. 탐라국의 실체 규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p>
--	---	---

<결> 부분에서는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초반부에 탐라왕 고봉례가 조선에 왕권을 반납하

는 탐라왕국의 몰락과정을 간략히 기술한다. 이는 탐라왕국의 몰락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천년왕국’이 있었으며 이것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탐라’, 즉 오늘날의 제주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제목에 걸맞게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이것이 프로그램 제작 의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JIBS)」의 <결>부분은 더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의 <결>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제주도민’을 뜻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제작 관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와는 달리 제주인들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을 제주인들의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사실 전달을 넘어 제주의 역사를 더욱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 주체는 제주도민이 되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라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방송으로서 제주의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제주 고대사와 관련된 새로운 화두를 지역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2부의 <결>부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학계의 연구로 탐라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학계의 공동연구와 학자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 간의 대립과 학계의 갈등으로 탐라국 역사 조명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학계를 향한 요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또한 ‘탐라국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삼성신화의 해석을 둘러싼 일부 도민의 반발’이 ‘제주사 정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표현하며 지역의 일부 세력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비판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향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사 정립을 위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탐라국의 실체 규명’이 역사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주목받는 제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즉, 탐라국에 대한 역사 규명이 제주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지방분권 시범도로서의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은 <결>부분에서 관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방송에서 제작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KBS)」의 경우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제주의 고대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반면 지역방송은 <결>부분을 통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 고대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제주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이는 제주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이 제주의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레이션의 내용적 차이나 관점의 차이는 목표 수용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목표 수용자를 ‘제주지역 시청자’ 또는 ‘제주도민’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 내레이션 비교 분석

앞서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결>부분 내레이션에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간 관점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탐라순력도란 이형상 목사가 제주목사로 도입했던 1702년 가을 20여일에 걸쳐 관내순시를 하였는데 이때의 장면과 그 후의 행사들을 그려놓은 화첩이다. 먼저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기>부분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다.

<표-9>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기>부분 내레이션

KBS	JIBS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3백년전에 그려진 화첩 한 권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림은 모두 41장,	1974년 10월 24일 대구효성여대학보 1면에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

<p>보존처리를 거치면서 하나씩 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속엔 굴나무가 무성하고, 수십 마리의 말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3백 년 전의 제주도, 그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었다.</p>	<p>제주와 관련된 오래된 화첩 하나가 경북영천에서 발견 됐는데 크나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사를 작성했던 권영철 교수는 화첩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숙종조 제주목 제반사의 정밀한 문헌... 정교일품의 도회와 더불어 불후의 문화재... 화첩의 제목은 탐라순력도 18세기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p>
---	---

먼저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경우 탐라순력도를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현장을 화면에 담아내 보여준다. 여기서 ‘탐라순력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41장의 그림이 하나씩 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할 뿐이다. 그림에 대해서도 ‘굴나무가 무성하고 수십 마리의 말이 등장하기도 한다’며 스쳐지나가는 듯한 영상과 함께 간단한 묘사를 할 뿐이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마지막 문장에서 ‘3백 년 전 제주도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탐라순력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기>부분에서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경우 탐라순력도가 세상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다. 1974년 10월의 대구효성여대 학보 기사를 보여주며 당시 이 대학의 교수가 탐라순력도를 소개하는 글을 인용한 것이다. 그 화첩은 ‘제주와 관련된 화첩’으로 ‘숙종조 제주목 제반사의 정밀한 문헌’이며 ‘정교일품의 도회와 더불어 불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화첩의 이름은 ‘탐라순력도’이며 이 학보에 기사가 실리면서 ‘18세기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라순력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보 지면과 기사의 내용은 공개됐지만 탐라순력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 역시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와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단지 ‘탐라순력도’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했을 뿐 두 프로그램의 <기>부분의 내레이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결>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

인다. <결>부분 내레이션 원고는 다음과 같다.

<표-10>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

KBS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JIBS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p>3백 년 전에 만들어진 탐라순력도. 여기 있는 41장의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제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는 해안 방어를 철저히 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말 산지로, 조선의 국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던 군마의 공급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 유일의 순력화인 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관이 했던 순력의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력의 가장 막중한 업무는 군사 시설의 점검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상품을 관리하고, 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건, 기록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후대에 남겼기 때문입니다.</p>	<p>3백 년 전 침묵 속에서 깨어난 탐라순력도 오늘날 우리가 탐라순력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제 3백 년 전 탐라순력도를 통해 우리가 남길 발자취를 생각해야 할 때다 21세기 제주의 모습을 담아낸 또 하나의 탐라순력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오늘의 제주를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제주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탐라순력도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p>

먼저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의 경우 진행자가 등장하여 ‘3백 년 전에 만들어진 탐라순력도의 41장의 그림들을 통해 당시 제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3백 년 전 제주는 ‘최대 군마공급지였으며 해안 방어를 철저히 했던 군사 요새였다’라고 말한다. 또한 ‘국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던 군마의 공급지’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즉 이 프로그램의 제목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가 말해주듯 군사요새였던 제주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임이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결>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조선시대 지방관이 했던 순력의 내용도 설명하고 있

는데 ‘가장 막중한 업무는 군사 시설의 점검과 군사 훈련 실시’였다고 말한다. 이 역시 ‘제주가 군사요새였다’는 주제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하는 부분이다. 즉 <결>부분의 내레이션은 ‘제주는 군사요새였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반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의 경우 ‘오늘날 우리가 탐라순력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첫 문장을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 수용자인 제주도민, 또는 제주지역 내 시청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탐라순력도 자체보다 이형상 목사를 높이 평가했던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에 비해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라 평하고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남길 발자취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시청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21세기 미래 제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제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탐라순력도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설명하며 끝을 맺는다. 즉 탐라순력도를 통해 3백 년 전 제주를 돌아보고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사명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의도이자, 탐라순력도를 바라보는 제작자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 <기>부분의 내레이션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프로그램은 <기>부분에서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탐라순력도’를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하여 ‘탐라순력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반면 두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최초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KBS)」는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는 군사요새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복하며 끝을 맺는다.

즉, 탐라순력도는 군사요새 제주를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알린 역할을 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JIBS)」에서는 탐라순력도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료’라 평하며 그 가치를 극대화했고 특히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제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자료라 평가한다. 즉, 탐라순력도를 통해 지역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자부심은 물론

현재의 지역 사회의 의제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방송에서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의제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레이션의 내용적 차이나 관점의 차이 역시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목표 수용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은 ‘제주지역 시청자’ 또는 ‘제주도민’을 목표 수용자로 분명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3)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비교 분석

앞서 역사 다큐멘터리인 ‘제주 고대사’와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이야기 내용과 내레이션 모든 부분에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보였다. 반면 환경 다큐멘터리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이야기 내용에서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 관점의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내레이션에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먼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숲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굳은 바위 위로 생겨난 숲,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기>부분 내레이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기>부분 내레이션

KBS제주		EBS
겨울에도 푸른숲, 꽃자왈	원시의 숲, 교래곶	물의 숲, 꽃자왈
온 숲이 흰 눈에 쌓였다. 거목마다 눈으로 꽃을 피웠다. 겨울 숲은, 푸르름이 아닌 흰 빛으로 아름답다. 같은 시기. 제주도의 또 다른 숲에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꽃자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 던 제주도만의 숲이다. 이 숲이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한겨울, 눈이 내린 직후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화산섬 제주에는 제주만의 숲 꽃자왈이 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뜻하는 곶, 잡목과 덩불을 뜻하는 자왈이 겹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해발 300m에서 400m 사이 중산간 지역에 넓게 분포한 꽃자왈, 섬 전체가 숲이다시피 한 제주에서 굳이 이곳에 꽃자왈이란 별칭을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마치 빗장을 채운 듯	제주의 겨울은 변화무쌍 그 자체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바람의 힘을 빌어 좌로 혹은 우로 북제주 선흘리를 온통 휘감는다. 잠시 세상의 시간이 멈춘 동안에도 선흘리에는 홀로 깨어있는 거대한 숲이 있다 이곳의 생명들은 바깥 세상과는 그 속도를 달리한다. 숲으로 들어서면 초록으로

<p>쌓이지 않고, 마치 열대지방의 원시림인 듯 초록이 울창한 것이다. 심지어, 땅 밑에선 지열까지도 뿜어져 나온다. 겨울이 사라져버린 숲, '꽃자왈'-. 그 숲은 왜, 겨울 에도 푸른 것일까.</p>	<p>누워 자란 나무들로 그 입구에서부터 난공불락인 꽃자왈.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고집 덕분에 남다르게 지켜온 생명의 신비가 그곳에 있다. 육지는 물론 제주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수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 인간의 호기심은 이곳 원시림까지 파고들었다. 그 탄성을 입에서 입으로  옮겨내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은 이제 소유욕으로 돌변했다 이곳 꽃자왈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p>	<p>우거진 원시림이 펼쳐진다. 겨울에 눈이 내려도 이곳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다. 쌓이는 순간 눈은 곧 물이 된다.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숲 하늘의 물을 품어 그것을 걸러내 또다시 생명의 물로 만드는 물의 숲이다.</p>
--	---	---

JIBS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
<p>한라산과 중산간은 온통 하얀 백설로 뒤덮여 있다. 이국적인 남국의 정취와 함께 펼쳐지는 순백의 향연은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낭만을 제공한다. 제주의 겨울을 마냥 낭만으로 느끼기에는 성급한 일이다. 찬 소리를 내며 매섭게 달려드는 북서계절풍 때문이다.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제주의 겨울 바람은 이내 이방인들의 선입견을 확 바꿔 놓는다. 그러나 겨울을 잇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다.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수풀림 꽃자왈 지대 사계절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하는 곳이다. 찬바람 가득한 제주의 그 여느 곳과 달리 꽃자왈은 마치 안방에 들어 온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하다.</p>	<p>정적에 휩싸인 선흘꽃자왈 고요한 달빛 아래 물장군 수컷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장군은 부성애가 뛰어나기로 이름난 곤충 너석은 열흘 전 암컷이 낳은 알을 지키고 있다 잠시 후 알에서 연두 빛 애벌레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부화가 시작된 것이다. 머리부터 나온 애벌레는 앞뒤로 힘차게 움직이며 6개의 다리를 뻗낸다. 알무더기에서 경쟁을 하듯 애벌레가 하나 둘 뛰쳐나온다. 숲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소리 없이 축복한다. 물장군 애벌레는 꽃자왈에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령사.</p>

<p>이곳 꽃자왈의 생명들은 계절을 잇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숲을 가리켜 생명의 땅이라 부른다.</p>	<p>꽃자왈은 지금 새 생명의 힘찬 몸짓으로 가득하다.</p>
---	--

먼저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와 「물의 숲, 꽃자왈(EBS)」,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의 <기>부분 내레이션 원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의 경우 우선 한라산 일대 눈이 쌓인 겨울 숲을 설명한 뒤 같은 시간 눈이 전혀 쌓이지 않고 지열까지 솟아오르는 꽃자왈로 이동하며 왜 이 숲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물의 숲, 꽃자왈(EBS)」역시 북제주군 선홍리의 눈 오는 길의 모습을 묘사한 후 같은 선홍리 지역의 눈이 쌓이지 않은 꽃자왈 숲 내부를 설명한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역시 한라산 정상 일대의 설원의 아름다움과 매서운 겨울 바람을 소개한 뒤 중산간 일대의 눈이 쌓이지 않은 숲 꽃자왈을 소개한다. 이는 세 프로그램이 겨울철을 중심으로 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겨울철 꽃자왈의 가장 신비한 특징이 한 겨울에도 좀처럼 눈이 쌓이지 않고 한 여름처럼 푸르름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이러한 꽃자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부분에 이와 같은 내레이션과 영상을 나란히 배치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에서는 ‘아무리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마치 열대지방의 원시림인 듯 초록이 울창하며 땅 밑에선 지열까지도 뿜어져 나온다’고 표현한다. 「물의 숲, 꽃자왈(EBS)」에서는 ‘겨울에 눈이 내려도 이곳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다’고 꽃자왈의 겨울을 표현했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에서는 ‘꽃자왈 지대는 사계절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하는 곳’으로 ‘찬바람 가득한 제주의 다른 곳과 달리 안방처럼 아늑하고 포근하다’고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 속에서 <기>부분의 내레이션 마지막 문장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의 차별을 시도한다. 이는 각 프로그램의 제목과 연장선상에 있다. 먼저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에서는 ‘꽃자왈은 왜 겨울에도 푸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비해 「물의 숲, 꽃

자왈(EBS)」에서는 꽃자왈을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숲, 하늘의 물을 품어 생명의 물로 만드는 물의 숲’이라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꽃자왈의 여러 가지 특성과 기능 중에 제주의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지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물의 숲, 꽃자왈’이라는 제목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 역시 마지막 두 문장에서 ‘꽃자왈의 생명들은 계절을 잊고 살아가며, 그래서 이 숲을 생명의 땅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이는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에서 꽃자왈의 풍성한 생태계와 그 속에 살아가는 동, 식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즉, 세 프로그램은 겨울 꽃자왈이 푸른 특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후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암시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작 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과 제작자의 제작의도가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점은 「원시의 숲, 교래꽃은 사라지는가(KBS제주)」와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JIBS)」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시의 숲, 교래꽃은 사라지는가(KBS제주)」의 <기>부분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꽃자왈의 특성과 그 이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화산섬 제주만의 숲 꽃자왈’, ‘나무가 우거진 숲을 뜻하는 꽃, 잡목과 덩굴을 뜻하는 자왈’, ‘해발 300m에서 400m 사이 중산간 지역에 분포한 꽃자왈’. 그리고 꽃자왈의 풍성한 생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남다르게 지켜온 생명의 신비’ ‘육지는 물론 제주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생명들이 있는 곳’. 끝으로 꽃자왈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 ‘인간의 호기심은 이제 소유욕으로 돌변했다’ ‘꽃자왈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 역시 ‘원시의 숲, 교래꽃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소중한 자연인 꽃자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JIBS)」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물장군 알덩어리가 집단으로 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숲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소리 없이 축복한다’는 의인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물장군 애벌레는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령사’로 여름이 시작되는 꽃자왈은 ‘새생명의 힘찬 몸짓으로 가득하다’며 뒤이어 꽃자왈의 풍성한 생태와 동식물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암시한다. 이 역시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숲 속의 대향연’이라는 제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두 프로그램의 <기>부분의 내레이션 역시 제작주체의 관점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향후 전개될 프로그램의 내용을 암시할 뿐이었다.

반면 각각의 프로그램의 <결>부분의 내레이션에서는 제작주체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2>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

EBS 겨울에도 푸른숲, 곶자왈	KBS제주	
	원시의 숲, 교래곶...	물의 숲, 곶자왈
<p>곶자왈이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감춘 것을 외면하고 사람이 가진 잣대로 수 십 만 년의 세월을 재단하고 있다. 곶자왈과, 거기 깃드는 생명들에게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은 없다. 그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은 곶자왈, 그 자체일 뿐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인지도 모른다.</p>	<p>용암지대에서 태어나 그 장구한 세월을 견뎌내고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도 곶자왈은 말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곶자왈에 인간의 집을 세우고 하루 수 천 명이 오간다면 용암지대에서 태어난 이 여린 생명들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많은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을 품어온 교래곶자왈 그 생명의 숲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p>	<p>묘산봉 관광지구 안에 곶자왈 지대가 존재한다는 전문가의 지적, 제작진은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숨겨진 곶자왈 지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원시의 숲을 헤치고 한 시간 여를 헤맨 끝에 마침내 곶자왈 지대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주로 곶자왈 용암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진 반가운 얼굴들이 동시에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탐스런 열매를 뽐내는 희귀종 백량금과 향이 백리를 간다는 백서향이 바로 그 주인공. 물을 품은 신비의 숲 곶자왈은 그만의 독특한 생태 계를 가진 가치 있는 공간이다. 개발 논리에 맞서 물의 숲을 보존하는 일, 그것은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남겨진 크나큰 숙제일 것이다.</p>
JIBS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
<p>늘 푸른 숲, 계절을 잇은 신비의 숲, 꽃자왈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생태낙원이다. 늘 푸른 식생은 사계절 맑고 깨끗한 공기를 토해내 제주 섬을 호흡하게 한다. 그리고 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한다. 한때 지각없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짓눌려 갈기갈기 찢긴 상처투성이의 꽃자왈! 이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갈 때이다.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다시는 부질없는 이기심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 푸르고 싱싱하게 지켜 나가는 소명, 바로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의 몫이다. 봄기운 가득한 꽃자왈의 생명들 그들은 다음 오는 계절을 위한 생명의 대 합창을 준비하고 있다.</p>	<p>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다. 계절의 시간은 다시금 새로운 계절을 불러들인다. 한 여름의 떠들썩했던 합창도 끝이 났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고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가을의 분주함도 막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긴장에서 벗어나 침묵하는 겨울에도 꽃자왈의 많은 생명들은 쉬는 법이 없다. 그래서인지 꽃자왈은 모진 삶을 이어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제주 사람들과 꼭 닮아있다. 이제 꽃자왈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꽃자왈은 제주인과 늘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맑은 공기와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내 제주의 모든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숲, 꽃자왈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꽃자왈을 생명의 땅이라 한다.</p>

먼저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KBS제주)」의 <결>부분 내레이션을 살펴보면 ‘꽃자왈이 스스로의 가치를 숨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며 ‘사람의 잣대로 꽃자왈을 재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꽃자왈과 생명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은 없는 것이며, 단지 꽃자왈을 있는 그대로 놓아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꽃자왈에게 꽃자왈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꽃자왈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KBS제주)」의 <결>부분 내레이션은 전반적으로 꽃자왈이 파괴되는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꽃자왈의 위기를 ‘말이 없다’, ‘그들의 소리없는 아우성’,

‘여린 생명들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생명의 숲이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물의 숲, 꽃자왈(EBS)」의 <결>부분 내레이션은 간결함과 여운의 방식을 취한다. 「물의 숲, 꽃자왈(EBS)」의 경우 묘산봉 관광지구 안의 꽃자왈 지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결>부분에 담았다.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는 문장은 독립적인 시퀀스로서의 <결>부분이 아닌 바로 전 시퀀스에서 이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꽃자왈 지대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며 꽃자왈 지대를 찾았음을 알린다. 또한 꽃자왈에서 살아가는 희귀종 ‘백량금’과 ‘백서향’을 소개하고는 마지막 두 문장에서 ‘꽃자왈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가치 있는 공간’이며 ‘물의 숲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간결하게 서술하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물의 숲, 꽃자왈(EBS)」은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실질적인 <결>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짧은 문장과 간결한 흐름으로 ‘우리의 숙제’를 강조하며 끝을 맺어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세 프로그램은 모두 <결>부분의 내레이션에서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 꽃자왈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각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자나 원고를 쓴 구성작가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관점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JIBS)」에서는 그 관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1부(JIBS)」의 <결>부분 내레이션은 꽃자왈의 가치를 ‘조물주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생태낙원’이라 극찬한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내고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꽃자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그 뒤로 ‘인간들의 이기심에 짓눌린 상처투성이의 꽃자왈’이란 표현으로 꽃자왈의 위기를 강조하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해 나갈 때’라며 ‘다시는 부질없는 이기심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꽃자왈 보호를 역설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만약 중앙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꽃자왈 보호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 표현했다면 이는 제주도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방송의 제작자는 스스로를 제주도민과 동일시하며 ‘이 섬에 사는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목표 수용자를 제주도민 또는 제주지역 내의 시청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섬에 사는 사람’이란 표현은 앞서 ‘제주고대사’나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에서 ‘우리’와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레이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곶자왈을 지켜 나가는 소명’은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의 몫’이라 말한 것이다. 이 역시 지역방송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시청자들에게 곶자왈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곶자왈의 생명들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며 2부의 내용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생명의 땅, 곶자왈의 사계-2부(JIBS)」의 <결>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입부에서 ‘새로운 계절을 불러들인다’와 ‘막을 내렸다’ 등의 표현으로 사계절의 다른 내용이 끝났음을 암시하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이 끝났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곶자왈의 많은 생명들은 쉬는 법이 없다’는데 이는 ‘모진 삶에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제주 사람들과 꼭 닮아있다’며 곶자왈과 제주인들의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 생태적 가치를 강조해온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자연 생태적 가치에서 인문학적 가치로 그 영역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곶자왈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곶자왈이 더 이상 상처받아서 안된다’면서 그 이유는 ‘곶자왈은 제주인과 늘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 역시 곶자왈에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제주의 모든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숲이라 표현하는 부분 역시 그 연장선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곶자왈의 가치를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는 곶자왈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 역시 내레이션에 있어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이는 <기>부분이 아닌 <결>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부분에서 수용자를 지역 시청자로 한정하려는 설정이나 ‘곶자왈’의 가치를 인문학적 영역으로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중앙방송에서 목표 수용자를 전국의 국민으로 설정한 것이나 곶자왈의 가치를 자연, 또는 생태학적 가치에 국한시키는 것과는 비교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KBS제주총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내레이션에서 관점의 차

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왓(KBS제주)」 과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KBS제주)」 의 경우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작에 있어서는 KBS제주총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방송은 KBS<환경스페셜>이라는 정규물을 통해 전국권역으로 방송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에서 제작되지만 목표 수용자를 전국의 국민, 전국의 시청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V. 결론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중앙방송에서 제작된 TV 다큐멘터리와 제주 지역방송에서 제작된 TV 다큐멘터리의 관점의 차이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소재를 다룬 중앙과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곶자왈’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다룬 10개의 다큐멘터리를 비교 분석하여 하나의 소재가 서로 다른 제작주체에 의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비교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형식적 구성 요소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이며 둘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서사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서사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와 담론 분석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내용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상호 비교했다. 끝으로 내레이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와 제작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1> 에 대해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이 형식적 구성에 있어 제작주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우선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방송과 지역 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형식적 구성요소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앙방송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중앙과 지역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른 것인지 제작자의 성향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웠다.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탐라순력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형식적 구성비율 역시 제작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이 인터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역시 개별 프로그램이 지닌 특성과 제작자의 제작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반면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 구성요소의 상호 비교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제작한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실촬영 비율이 중앙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실촬영 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실촬영 구성 비율을 중시하고 또 실촬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방송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실촬영 장면을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같은 계절에 제작된 「물의 숲, 곶자왈(EB S)」과 「겨울에도 푸른 숲, 곶자왈(KBS제주)」을 상호 비교해 보면 이같은 추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이 역시 제작자의 제작의도, 프로그램의 주제가 형식적 요소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연구문제 2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에 대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야기 내용의 구성은 제작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 프로그램의 경우 <의문제기→설명> 구도의 반복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 프로그램의 경우 <설명→설명>과 <문제제기→설명>의 두 가지 구도를 사용하고 있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주체에 따라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와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서 명확한 관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곶자왈’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별다른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제작주체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의 프로그램은 중앙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이야기의 내용에 있어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반면 중앙방송에서 제작한 경우 중앙의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 ‘제주고대사’ 관련 프로그램인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에서는 제주가 독립된 해상왕국이었다는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신선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그러나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지역 시청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내용을 첨가한다. 탐라가 해상왕국을 넘어 백제, 신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내용은 물론 ‘탐라는 금관가야에 버금가는 독립소국’이었다는 내용을 담아낸다. 또한 삼양동 유적을 통해 ‘제주문화가 육지보다 더 선진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외도동 유적을 통해 ‘계획적으로 만든 신도시’라는 평가와 ‘한반도 보다 3백년 가량 앞선 우물’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난방시설’이란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의 경우 기원후의 제주사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반면 「탐라왕국 재조명 2부작」은 1부에서 기원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 그 의도를 언급하면서 관련 학자의 주장을 통해 제주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같은 역사 다큐멘터리인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와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의 경우도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두 프로그램은 각각 제목에 그 주제와 제작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는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가 군사요새였다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데 충실한 반면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는 제주인의 관점에서 탐라순력도를 통해 18세기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상세히 유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또한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에서는 탐라순력도의 다양한 가치와 그 기원까지 추적하였다.

그러나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곶자왓’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특별한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대신 ‘곶자왓’이라는 지형의 지질학적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덧붙여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일 뿐이었다. 관점의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은 환경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자연 보호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며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대다수의 시청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연구문제 3 :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에 대해서는 내레이션의 경우 역사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 두 가지 유형 모두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모든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결>부분 내레이션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와 ‘탐라순력도’ 관련 <결>부분 내레이션에서 중앙방송 프로그램은 앞서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요약 전달하며 끝을 맺는다. 이와 비교해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에서는 내레이션의 내용에 ‘지역주민의 역사적 자부심과 책임감’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훼손의 문제를 고발하는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방송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책임감’, 그리고 ‘자연과 지역주민을 동일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지역방송에서는 꽃자왈의 가치를 인문학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단, KBS제주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부분과 <결>부분의 내레이션 모든 문장에서 지역방송으로서의 차별화된 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연구대상인 KBS<환경스페셜> 2편의 경우 제작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방송이라 볼 수 있지만 방송권역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방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 구성을 분석해보면 지역방송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반면 내레이션 분석에 있어서는 중앙방송에 가깝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찾아보았다.

우선,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중앙방송의 다큐멘터리와는 차별화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의

유형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대상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주 시청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전국 권역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의 시청자들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재를 다루더라도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중앙방송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전국권역의 시청자보다 특정 지역의 시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문화적, 정서적 공통점을 지닐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방송 다큐멘터리의 차별화된 관점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야기 내용이나 내레이션 비교 분석 결과 지역방송 다큐멘터리의 경우 지역민의 역사적 자부심이나 책임감(「탐라왕국 재조명-2부작」과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그리고 환경 보전에 따른 책임감(「생명의 땅, 꽃자왈의 사계-2부작」)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발견되는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방송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직, 간접적인 메시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역 내부의 현상이나 사물, 인물을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프로그램, 즉 지리적 관점의 로컬리즘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의 로컬리즘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다큐멘터리의 차별화된 관점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큐멘터리는 다른 장르와 비교해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시도할 뿐 아니라 일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창조적 처리'라는 존 그리어슨의 정의(전평국, 1994)에서 볼 때 차별화된 지역방송 다큐멘터리의 관점은 지역 고유의 콘텐츠 발굴과 그것이 지닌 의미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방송의 차별화된 관점이 갖는 목표인 '지역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형식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양자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다. 그동안 동일한 소재를 다

룬 다큐멘터리의 유형 간 관점의 차이나, 시대별 차이, 그리고 국가간 차이는 다루어진 바 있으나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다큐멘터리가 갖는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 내용 분석과 내레이션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같은 다큐멘터리 장르라 할지라도 역사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라는 두 가지 유형에 있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낸 점이다. 중앙과 지역에 있어 역사 다큐멘터리 유형인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데 비해 환경 다큐멘터리 유형인 ‘꽃자왈’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KBS <환경스페셜>과 KBS <추적60분>을 비교 분석한 기존의 연구(최현주, 2006)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유형에 따른 또 다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TV 다큐멘터리의 중앙과 지역방송이라는 제작주체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제작주체의 프로그램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 가운데 중앙방송과 소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다 보니 연구대상이 10개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이 특정방송사에 치우쳐 연구대상에 속하지 않은 지역방송사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같은 지역의 지역방송이라 할지라도 방송사와 제작자에 따라 다양한 제작 기법과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향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타 지역의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제작주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제주지역 TV 다큐멘터리의 경우 연구대상의 선정기간을 확장하거나, 특정 유형의 다큐멘터리로 한정하여 선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대인(2003), 『한국방송의 정체성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균 외(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한국 TV 다큐멘터리 형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방송문화진흥회編(1990), 『방송대사전』, 서울: 나남.
- 배종대(2001), 『디지털방송PD』, 서울: 박문각.
- 전평국(1994), 『영상다큐멘터리론』, 서울: 나남.
- 장해량 외(2004), 『TV 다큐멘터리, 세상을 말하다』, 서울: 샘터사.
- 주창윤·최영목(2003), 『텔레비전 화면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양목(2003),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소진(2007), 『방송구성 대본쓰기』, 서울: 랜덤하우스.
- 한지원(2008), 『깊이있는 TV구성 다큐멘터리 이렇게 쓴다』, 서울: 시나리오와 친구들.

### 2. 국내연구논문

- 강승목(2001),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균(1988), TV 다큐멘터리 현황과 과제1). 『신문과 방송』, 한국신문연구소  
1988년 3월3일호.
- 김선임(2002), 『TV시사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소외집단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MBC<PD수첩>의 영상기법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문(1993),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방송문화』,  
통권 145호.
- 김용남(2003), 『청소년 영상제에 나타난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경향 분석』,  
경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훈순(2000) 영상매체의 역사쓰기, KBS<역사스페셜>. 「프로그램, 텍스트」 제3호, 9~36.
- 남성우(2003), 『한국 TV역사 다큐멘터리의 형식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복(1996),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수용자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예란(2008),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임(1993),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원용진(1996), 사회적 장르로서의 TV 다큐멘터리. 『방송개발』, 봄·여름호 한국방송개발원.
- 황인성(1999), 담론적 접근으로 풀어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문화연구』, 서울: 한나래, 135~168.
- 이금희(1987),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문화, 교육성에 관한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길(1997), 『지방방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2007), 『TV 다큐멘터리 시청자 기호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수(1999),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 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301~341.
- 인영숙(2001), 『TV역사 다큐멘터리<역사스페셜>의 역사쓰기 방식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분(2008), 『미디어 ‘다문화’현실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하(1983), 『텔레비전 보도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주창윤(2003),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구조.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197~222
- 진기웅(2001), 『동,서양 다큐멘터리의 텍스트 구조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송(2002), 『다큐멘터리 리얼리즘의 양식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주(2006),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6권2호, 415~441.

홍혜경(2001), 『텔레비전 역사 다큐멘터리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동미(1995), 『빌 니콜스의 다큐멘터리 양식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성(1999),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민속지학적 관음주의와 타문화 현실 구성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텍스트』, 제1호, 209~288.

### 3. 국외문헌

Bill Nichols(1983), 'Voice of Documentary', *Film Quarterly*, Brian G. Rose, 'TV Genre'.

Bill Nichols(2001), 'Introduction of documentary' 이선화 역,(2005),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

Fiske. J. Hartley. J(1994), *Reading Television*, 이은성, 이은호 역, (1997) 「텔레비전 읽기」.

Grierson, John. *Grierson on Documentary* (Faber, 1996)

Hall, Stuart(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T. Bennett & J. Curran(Eds.), *Culture, Society and Media*. Newyork Methuen.

Hoffer, Tom and Nelson, Richard, "Docudrama on American Television", *Why Docudrama?* (Illinois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9), p. 65.

Jack C. Ellis(1989), 'The Documentary Idea', Hew Jersey; Prentice Hall.

Jack C. Ellis(1989), *The Documentary Idea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Language Documentary Film and Video*, p.2, New York;

Jacobs, Lewis(2ed.), *The Documentary Tradition: From Nanook to*

Woodstock, (W.W.Norton,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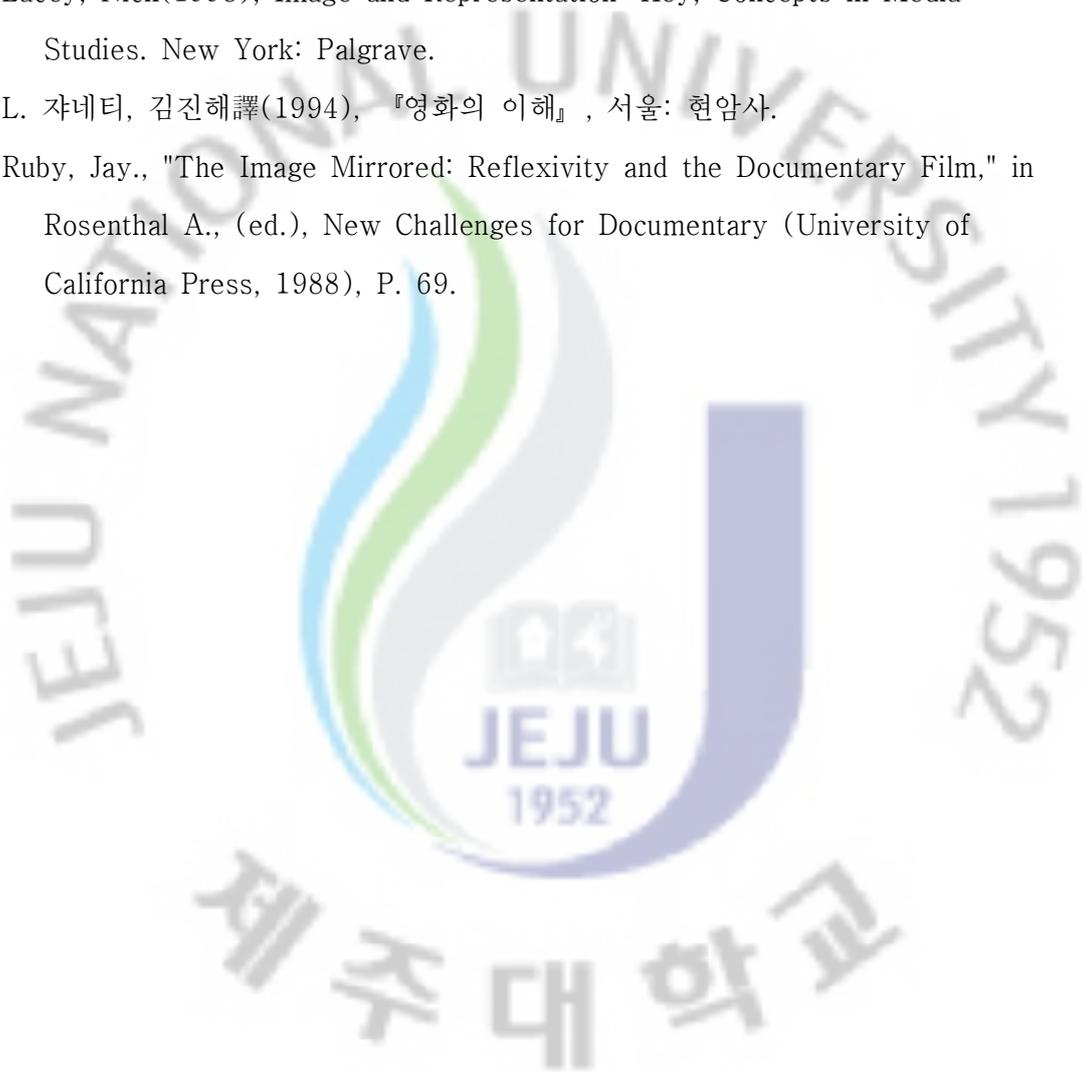
Kozoloff, S. R.(1992). 서사이론과 텔레비전. In R. Allen. (Ed.). Channels of discourse(67~108).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

Kilborn, Richard. and Izod John, Confronting Reality: An Introduction to Television Documentary (Manchester, 1997).

Lacey, Nick(1998), Image and Representation: Key, Concepts in Media Studies. New York: Palgrave.

L. 차네티, 김진해譯(1994), 『영화의 이해』, 서울: 현암사.

Ruby, Jay., "The Image Mirrored: Reflexivity and the Documentary Film," in Rosenthal A., (ed.), New Challenges for Document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 69.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V Documentary  
produced by Key Station and Local Station  
; Focus on 'Jeju Ancient History', 'Tam-ra Sunryukdo' and 'Gotjawal'

Jae-Yup Jung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A documentary based on factuality is different from the other types of films because of its deep analytical approaches on an issue. The real truth, or the value of truth, reconstructed by a documentary can also vary depending on the person's point of view. This paper was centered on how differently these features can be reflected, by each broadcast production body—key station and local st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documentary.

This research was archive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documentary produced by the key station and Jeju local station respectively; both of them handled the same subject, such as 'Jeju Ancient History', 'Tam-ra Sunryukdo' and 'Gotjawal'. Basically the analysis of the formal composition for each documentary program was taken to figure out whether it can define their differences. Furthermore, of the narrative analysis including the two aspects—stories and discussion, the analysis of each program was focused on the stories, the analysis of narration helped find out the different viewpoints held by each station body.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mal composition for each program, the environmental documentary

(Gotjawal) showed larger differences in viewpoints of each body than the historical documentary(Jeju Ancient History&Tam-ra Sunryukdo). When the environmental documentary weighs more on actual shooting than other fields of documentary, this is because Jeju local station has an advantage over its counterpart in geographic proximity.

By the analysis of the stories, however, it could identify that while there were no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wo bodies in environmental documentary, the historical documentary showed apparently significant differences. Because various interpretation could be made depending on its purpose when making historical documentary, such a result probably came out. The documentary about 'Jeju Ancient History'&'Tam-ra Sunryukdo' created by Jeju local station took comparatively more subjective viewpoints from the local residents than those of the key st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point of view was uncovered through analysing the narrations. The historical documentary produced by local station often showed local people's pride in their history and their commitment on it, and environmental documentary showed an effort to expand the value of nature into humanities, a sense of unity as well as their commitmen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Jeju local station not only tends to maximize geographical advantages in making a documentary, but also tries to take local residents's perspectives and eventually make them feel self-esteem and commitment as a local citizen. As a result, it can be drawn from the research that the differentiated stand point of the local station from the key station is they try to develop the local society by its documentary. In addition, the local body has a high capability to dig out its own subjects in local area and various potentials to develop the meaning.

## 【부록 : 시퀀스 분석표】

〈표-13〉 제주에 천년 왕국이 있었다 -KBS / 시퀀스 분석표

구분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문선에는 과거 시험 기록에 얽힌 한 기록 소개. 과거 시험 합격자의 이름은 고유, 놀랍게도 그는 빈공, 즉 외국인이었음</li> <li>· 즉 고려시대 탐라는 외국이었다</li> </ul>
승	2	<p>▷스튜디오 MC 오프닝 멘트</p> <p>제주도는 고려시대만 해도 외국이었고 최근 신화로만 알려져 있던 탐라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삼양동 선사 유적지 발굴 현장 설명. 이곳은 1996년 제주시에서 삼양동 토지구획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남.</li> <li>·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짓고, 사냥, 고기잡이를 병행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 거주지만도 250여개이며 시설물도 제법 규모있게 갖춰짐.</li> <li>-강창화 고고학박사 인터뷰(발굴 도구, 시설관련 설명)</li> <li>-김병모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인터뷰(대단히 중요한 유적)</li> <li>-심교수(제주문화가 오히려 육지보다 더 선진적일 가능성)</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큰 집자리에는 귀한 유물과 한반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장신구도 발견됨. 이로써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li> <li>· 마을의 모습을 제주대 유물 발굴팀을 통해 복원-집/고용시설</li> <li>-이청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삼양동 뿐 아니라 용담동, 외도동, 광지리에도 마을 존재, 탐라국 초기 많은 인구가 제주 거주)</li> </ul>
	5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복제 반월형칼, 반월형석 설명, 탐라국 생활도구는 같은 시기 한반도 육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임.</li> <li>· 탐라국과 한반도 육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부여 송국리 현장-송국리 마을 유적과 제주도 삼양동 마을 유적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함.</li> <li>· 광지리 토기, 군곡리 토기, 공렬 무너 토기들로 볼 때 철기 시대 제주에서는 열려 있는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문화를 받아들였음.</li> <li>-임학중 인터뷰(동일한 유적, 유물 출토로 볼 때 당시 많은 교류 있었음, 이는 해류나 조류를 이용한 것)</li> </ul>
	7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지역과 제주 교류 설명</li> <li>·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해온 사람들은 누구일까?</li> </ul>
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년 용담동에서 철기시대 추정 무덤 발견. 무덤 안에서는 철제무기와 유리구슬 목걸이 발견-무덤이 주인은 당시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li> </ul>

	<p>가진 사람이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에 철이 생산되지 않음. 철제무기는 황해도 지방 낙랑군에서 제작된 것임.</li> <li>-이청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터뷰(용담동 철제무기는 기원 2세기 철기와 같음. 제주도에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나라가 존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기유물이 발견되면서 탐라국 건국은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 탐라 건국 신화의 ‘을나’는 북방 맥족이 사용하던 용어.</li> <li>-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탐라국은 북방으로부터 이동한 고대소국, ‘을나’는 이를 증명)</li> </ul>
10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제주도에 해양을 통해 북방 문화가 일찍 들어옴</li> <li>· 탐라국은 해양 지리적 이점을 통해 어떤 교역 활동을 벌였을까?</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용담동 제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깨진 유물은 당나라 자기임. 안덕면 대평리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옛 지명은 당포-‘당나라 당, 포구 포를 사용했음’</li> <li>-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당포 지명 통해 중국과 교역을 했던 곳임을 확인)</li> <li>· 당나라 문필가 한유의 문집에도 탐라국과의 교류 기록이 존재.</li> <li>· 산지항에는 한나라 때 통용되던 중국 화폐가 모두 발견됨. 이 가운데 오십대천은 국제 교역에 사용됐던 화폐임.</li> <li>-윤명철 동국대 사학과 교수(제주는 중개무역을 했을 가능성 있음)</li> <li>· 고대 항법상 중국에서 일본을 왕래하려면 제주도를 거쳐가야 했음. 탐라국은 지리적 잇점을 활용해 재력을 축적.</li> </ul>
12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돌려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임을 확인.</li> <li>· 6,7세기는 탐라국의 전성기, 그렇다면 이 시기 해양왕국의 수단이 됐던 탐라선은 어떤 배였을까?</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해남 마을 포구에 제주 현무암이 많음.</li> <li>-마을 할아버지 인터뷰(제주에서 말을 실어올 때 중심 잡기 위해 실어온 것)</li> <li>· 고대 선박 연구가 이원식씨를 통해 덕관배라 불리는 탐라배를 복원. 덕관배는 암초가 많은 제주 해안에 적응하기 위해 뱃머리에 통나무를 덧붙임.</li> </ul>
14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관배를 통해 먼 거리를 항해하며 교역 활동을 벌였던 탐라국. 하지만 그것만으로 작은 섬나라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버틸 수는 없었음.</li> <li>· 탐라국이 천년 해양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국사기의 기록-백제 문주왕 때 탐라 사신에게 높은 벼슬을 하사함.</li> <li>-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백제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음. 탐</li> </ul>

		<p>라국은 백제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국은 특산물 전복진주를 통해 고구려와 교역을 함</li> <li>-고창석 제주대 사학과 교수(탐라국 외교는 한 국가만을 상대하지 않고 정세 변화에 따라 옮겨감)</li> <li>· 7세기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자 탐라국은 당나라와 일본으로 눈길을 돌림.</li> <li>· 경주 황룡사터의 황룡사 9층탑. 9층은 각각 경계해야 할 9개의 적을 상징하는데 탐라도 포함됨. 즉 탐라국은 육지부의 다른 강대한 나라들과 위상을 같이 했음.</li> </ul>
결	16	<p>▷스튜디오 클로징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 탐라국에 관리가 파견되면서 자치 왕권은 급속히 약화. 조선 태종 때 탐라왕 고봉례는 왕권을 반납, 종말을 맞게 됨.</li> <li>·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며 교류를 해왔던 탐라, 이것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탐라의 모습임.</li> </ul>

<표-14> 탐라왕국 재조명, 제1부 탐라인의 실체를 찾아서 -JIBS / 시퀀스 분석표

구분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삼성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주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고 있음. 땅에서 솟아났다는 삼성설화가 탐라국의 개벽신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li> <li>· 삼성혈의 세 성인이 과연 탐라를 건설한 탐라인의 뿌리였을까?</li> </ul>
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평범한 밭처럼 보이는 이곳은 우리나라 이른 시기의 신석기 문화유적. 이 유적으로 우리나라 선사연표 다시 쓰여짐.</li> <li>-정영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위원장 인터뷰(구석기와 신석기 과도기적 유적이 제주에서 발견됐다)</li> <li>· 94년부터 4년간 이뤄진 발굴조사 결과, 1만전 유물들이 다량 출토.</li> <li>-강창화 고고학박사(이곳은 대규모 석기 제작 장소임.)</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년쯤, 농경문화가 시작되지 않은 시기 고산리 일대는 수렵에 최적의 장소였을 것. 이들의 생활이 수렵 중심이었다는 단서가 사냥용 화살촉.</li> <li>· 그런데 고산리와 유사한 화살촉이 충북에도 있다. 1만5천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의 단양 수양개 유적 유물.</li> <li>-이용조 충북대박물관장 교수(고산리 화살촉과 수양개 화살촉 비교)</li> <li>· 고고학계에서는 단양 수양개 유적과 고산리 유적을 서로 연관 없는 것으로 봄. 수양개 유적과 유사한 것은 일본 큐슈 지방에 많이 나타남.</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산리 유적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민무늬토기. 식물의 줄기를 첨가한 것으로 러시아 아무르강 지역에서 발견되는 양식.</li> <li>-임효재 서울대박물관장 인터뷰(고산리와 아무르강 유적의 연관성)</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년 전, 섬으로 고립되기 전 대륙과 이어진 상태로 수렵에 최적의</li> </ul>

		<p>조건. 사냥을 주로 했던 고산리 집단은 계속해서 사냥 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들의 문화를 제주 전역에 퍼뜨렸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년 전, 고산리는 한반도 보다 훨씬 앞선 독자적 문화 구축, 고산리 문화의 이동 경로는 제주인의 기원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li> </ul>
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간의 학술교류 협정식 열림. 고산리 유적과 아무르강 유역을 공동 발굴할 계획.</li> <li>-테레비얀코 러시아과학원 연구소장 인터뷰(고산리 유적과 러시아 유적들을 비교할 것)</li> <li>· 아무르강 유역의 문화는 1만2천년 전으로 고산리보다 앞선 것. 그렇다면 아무르강 유역의 문화가 고산리로 유입된 것일까?</li> <li>-강창화 고고학박사(두 문화가 매우 유사, 서해를 통해 유입 가능)</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르강은 오오츠크해로 흘러가는 4300km의 긴 강. 이곳 중류 노보페트로프카에서 제주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의 공동연구 진행.</li> <li>-네스체로프 러시아과학원 책임연구원(공동 발굴 조사의 목적)</li> <li>·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석기. 이곳 역시 고산리와 마찬가지로 석기 제작소였던 것으로 보임. 이곳의 석기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제주와는 다소 형태가 다르지만 눌러떼기 제작 방법은 공통점.</li> <li>· 아무르강 일대의 유물과 유사한 형태가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 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점.</li> <li>-알킨 러시아과학원 연구원(극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물의 형태는 물론 유물이 발견되는 궤적층에서도 유사점 있어. 30cm 정도의 깊이에서 유물이 발견됨. 실제 고산리도 퇴적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li> <li>-강창화 고고학박사(바람과 유수에 의해 퇴적이 덜 되기 때문)</li> <li>· 아무르강 중류 지역 오시포프카 문화로 대변되는 이 문화권은 신석기 시대 꽃을 피우게 됨.</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바로프스크 향토박물관에서 아무르강 일대 거주인들은 서구인이 아니라 고아시아족. 이들은 서해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을 당시 강줄기를 따라 제주로 왔을 것.</li> <li>-신숙정 연세대 강사(서해안, 제주, 중국은 당시 이어져 있었을 것.)</li> <li>-임효재 서울대 박물관장(서해안등은 동물의 이동이 수월했을 것)</li> <li>· 1만5천 년 전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시베리아 일대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던 것.</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입산봉 주위가 신석기 시대 유적지. 7천년전 고산리 수렵 문화가 있었음.</li> <li>-고재원 제주자연사박물관 고고학박사(김녕리는 고산리 문화의 한 분파로 여겨짐, 고산리 문화가 제주 전역에 퍼졌음)</li> <li>· 북제주군 북촌리 바위그늘집자리 유적. 5천년 전 새로운 형태의 토기 등장.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집단의 것.</li> </ul>

		-신숙정 연세대 교수(당시 물길에 의한 이동은 가능) · 신석기 시대 육지부는 농경문화였지만 제주는 수렵문화. 땅이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유적, 기원전 5백년 경 이곳에 들어온 집단은 수렵과 함께 농경생활을 함. -이청규 영남대 박물관장 인터뷰(상모리 집단은 남해안 일대에서 왔을 가능성) · 상모리 집단은 최초로 마을을 이루며 생활, 기원전 1백년까지 계속되고 제주시 일대로 이동하게 됨.
	11	· 제주시 용담동, 이곳에서 발견된 철기집단의 유물. 그리고 상모리 집단의 석곽묘가 나란히 발견됨. -강창화 고고학 박사(철기집단과 상모리 집단이 마찰 없이 함께 살아감.) · 기원전후 제주에는 여러 철기 집단이 들어옴. 삼성혈의 삼성인 역시 철기집단으로 여겨짐. 이들은 제주의 선주민들과 함께 천년왕국 탐라를 형성하게 됨 -신용 (선 탐라인 , 고구려 부족, 양맥 부족 , 부여 부족, 탐라국 형성
결	13	· 만 년 전 고산리에 최초로 정착했던 사람들의 수렵문화는 천년왕국 탐라까지 이어짐. 탐라국을 건국한 초기 집단은 어디에서 왔고 초기 실체는 무엇일까? · 정체성을 찾지 않고 세계화는 무의미함.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

<표-15> 탐라왕국 재조명, 제2부 탐라국의 실체를 찾아서 -JI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 당나라 시대의 역사서 당회요의 기록-‘중국 장수가 신라, 백제, 탐라, 일본 네 나라의 사신과 함께 태산에서 열린 국가 제사에 참석했다’ · 7세기 중엽 탐라는 신라, 백제, 일본과 함께 한반대 일대를 대표하던 해상왕국이었음.
승	2	·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은 본래 산지포라는 조그만 포구. 1928년 산지포에서 기원전후의 중국화폐 21점이 출토됨. · 당시 탐라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역 기착지였음.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 인터뷰(제주는 오늘날 홍콩 같은 중요한 항구 도시)
	3	· 탐라가 외부와 교역을 했다는 사실은 일정 규모의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뜻함. 즉, 지휘계층이 존재했던 것. · 삼양동 유적지는 기원전후 제주에 송국리형 주거지 즉, 한반도의 주거 형태가 존재했음을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양동 유적지에서는 중국 한나라식 팔찌도 출토됨.</li> <li>-강창화 고고학 박사 (팔찌를 통해 당시 사회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었음)</li> </ul>
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용담동은 탐라국의 중심지로 추정됨. 이 지역에는 30여기의 고인들이 있었음. 1985년 용담동에서 1미터가 넘는 철제장검이 출토.</li> <li>· 부산 동의대 박물관의 금관가야 유물. 이 가운데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된 철제장검, 목걸이 등은 용담동의 것과 흡사. 당시 탐라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li> <li>-강창화 고고학박사(철제장검을 통해 삼한지역의 장과 버금가는 세력이 탐라에 존재)</li> <li>· 기원후 2~3세기 경 마한의 소국들은 백제에, 진한의 소국들은 사로국에 병합, 변한의 소국들은 금관가야 중심의 가야연맹체로 발전.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의 맹주였고 탐라는 금관가야에 버금가는 독립소국이었음.</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규장각에는 삼성신화를 기록한 영주지 보관. 탐라국 건국에 관한 문헌 기록은 삼성신화가 유일.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활을 쏘아 서로의 구역을 정하고 촌락을 이룸.</li> <li>· 이후 세 개의 부족사회가 한 세력에 통합되면서 탐라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탐라국에 대한 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삼성신화 역시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li> <li>-박원실 제주대 사학과 강사 인터뷰(삼성신화는 역사적 기록)</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후 제주시 일대가 탐라의 중심지이며 용담동과 삼양동, 외도동, 광령리 등에 대규모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li> <li>-이청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터뷰(기원 전후 제주도내 인구 급증이 해안가 마을에서 확인. 인구는 제주도 외부에서 유입됨)</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정읍 가파도는 제주에서 가장 많은 60여기의 고인들이 밀집, 그 다음으로는 용담동과 광령리 일대에 고인들이 분포.</li> <li>· 광령리는 인접한 외도동 유적과 동일한 마을로 보임. 따라서 외도동 마을 유적은 삼양동 보다 갑절이상 규모가 큰 마을임.</li> <li>· 외도동 마을 유적의 특징은 집자리와 시설물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함. 이는 외도동 마을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였고 이곳의 정착민은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이주해온 집단이었음을 보여줌.</li> <li>-김경주 제주문화재연구소 연구사 인터뷰(외도동 유적은 미리 구획해서 취락을 형성한 것)</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도동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와 유물들이 출토, 특히 우물터가 눈길을 끄. 한반도에서 우물이 발견되는 시기는 삼국시대인 5~6세기. 즉 외도동 유적이 300년이나 앞섬.</li> <li>· 나무나 흙으로 만든 우물도 발견, 모두 70여곳이 우물터로 추정</li> <li>-김경주 제주문화재연구소 연구사 인터뷰(당시 생활수준이 높았을 것)</li> <li>· 외도동 유적 집자리에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난방시설이 발견됨.</li> </ul>

		-강창화 고고학박사 인터뷰(외도동 유적 시설이 선진적 수준) · 탐라국에 대한 기록은 서기 476년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백제왕이 탐라국 사신에게 은술이란 벼슬을 부여’ · 백제에 대한 조공은 한반도 최고의 해상왕국 백제의 움직임을 주시한 데서 비롯. 즉 고도의 외교술임. · 경주에 자리한 황룡사터. 황룡사 9층탑은 9개의 적을 가리킴. 이 가운데 4번째가 탐라. 즉 탐라는 신라가 두려워하던 9개의 나라 가운데 4번째였음. -이종욱 서강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탐라국의 위상을 중국, 신라도 알고 있던 것)
	9	
	10	· 당나라의 역사서 당회요에는 탐라국의 군사에 대한 기록이 전해짐. -고창석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탐라국 군사 존재의 근거) · 탐라는 백제에 조공을 하던 속국. 하지만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하자 662년 탐라국왕이 문무왕을 찾아 항복하고 신라의 속국이 됨. -이종욱 서강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속국은 소국이 대국을 섬긴다는 뜻)
	11	· 신라에 속국이 된 이후에도 탐라국은 독립왕국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감. 서기 663년 탐라는 군사를 파견, 백제부흥운동에 가담. · 백제 부흥운동을 계기로 탐라는 신라보다 일본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 서기 697년 신라는 탐라에 군대를 파견함. · 서기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라국은 탐라군으로 강등, 천년을 이어온 해상왕국 탐라가 실질적인 종말을 맞음. -고창석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실질적인 종말은 고려 숙종 때)
	12	·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탐라국, 그렇다면 탐라국의 역사문헌은 왜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 조선 세종 때인 1434년 제주목관아에 큰 화재가 발생. -홍순만 제주문화원장 인터뷰(목관아 화재로 역사문헌 소실) · 또한 고고학 유물자료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음. -강창화 고고학 박사(후대 마을 건설로 유적이 파괴) · 또한 탐라국에서는 고대 국가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단서인 고분이 발견되지 않음. -이청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터뷰(오키나와도 큰 고분 없어, 탐라국은 섬의 묘제풍습으로 접근해야) -유철인 제주대 철학과 교수 인터뷰(고분, 왕궁의 개념은 육지에서 나온 것)
결	13	·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찾고 제주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 · 국제자유도시, 지방분권의 시범도로서 탐라국 실체 규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표-16>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 -K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보존 처리하는 모습, 탐라순력도 그림들</li> <li>· 3백년 전 제주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음을 소개</li> </ul>
승	2	<p>▷스튜디오 MC 오프닝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력(巡歷)의 뜻 설명-봄, 가을로 지방관이 직접 군민의 풍속과 방어실태를 살피는 것</li> <li>· 탐라순력도는 임오년(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한달동안 순력을 하며 이것을 41장의 그림으로 남긴 것</li> <li>· 탐라순력도는 조선시대 순력을 기록한 유일한 화첩으로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됨</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존연구소의 보존처리 현장</li> <li>-박지선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인터뷰(보존 처리의 효과)</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보시사(陞補試士), 성산관일(城山觀日), 제주양로(濟州養老), 공마봉진(貢馬封進), 감귤봉진(柑橋封進) 소개</li> <li>· 41장의 그림 중 제주의 성(城)을 그린 그림이 12개로 가장 많음. 이는 목사가 성의 시설과 군대를 점검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임</li> <li>-김동진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순력도에 나타난 순력의 내용)</li> <li>-양창보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인터뷰(순력도의 회화적 가치)</li> </ul>
	5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장축을 통해 제주와 주변국 관계 설명</li> <li>· 탐라순력도를 만든 제주목사 이형상 목사 소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가 보관돼 있던 경북 영천 호연정 현장</li> <li>· 이형상 목사의 생애, 2백여권의 저서 소개</li> <li>-유명종 前 동아대 교수 인터뷰(이형상의 학문 경향에 대해)</li> <li>· 이형상의 저서 '남환박물관(南宦博物)' 소개. 남환박물관은 제주에 관한 지리서 성격을 띠</li> </ul>
	7	<p>▷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보시사(陞補試士)를 통해 제주목관아에서 과거시험 장면 설명</li> <li>· 탐라순력도 41장 그림 중 12장이 군사 관련 강조</li> </ul>
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조점(濟州操點), 별방조점(別防操點) 소개와 함께 조점(操點)의 뜻 설명-군사 훈련과 점검</li> <li>· 한라장축을 통해 3개 읍성과 9개 진성 설명</li> <li>· 별방진성과 제주의 독특한 축성(築城) 방식 소개</li> <li>-고봉만 제주방안구사 기능인 인터뷰(제주 축성의 특징)</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에서 발견된 군적부(軍籍簿)와 제주의 군사편제 소개</li> <li>-서태원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제주의 자체 방어)</li> <li>· 수산성조(首山城操)를 통해 산위에는 불로 신호를 하는 봉수로 해안에는 연기로 신호하는 연대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 모두 38개의 연대와 25개의 봉수가 있었음</li> <li>-김봉옥 향토사학자 인터뷰(제주의 봉수대 연락체계)</li> <li>· 한라장축을 통해 제주는 3개 읍성, 9개 해안진성, 63개의 감시소가 있는 군사요새임을 강조</li> </ul>
	10	<p>▷ 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왜구 때문</li> <li>· 또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 해안방어가 절실히 요구 됐음.</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장사, 관덕정, 솔대왓 현장을 통해 활쏘기 훈련 설명</li> <li>-홍순만 향토사학자 인터뷰(관덕정의 역사와 용도)</li> <li>-김동진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마을마다 활쏘기를 했던 이유)</li> <li>-서태원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활쏘기와 기병전술, 기병이 활성화된 이유)</li> <li>· 교래대렵(橋來大獵)을 통해 사냥과 기병 훈련 설명</li> </ul>
	12	<p>▷ 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래대렵(橋來大獵)을 통해 멧돼지, 노루, 꿩, 말 등의 공물(貢物) 소개</li> <li>· 순력과 함께 제주목사는 말을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김</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종 때 만들어진 목장 지도를 소개,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전국의 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주마임을 확인</li> <li>-남도영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군마와 종마로서의 제주말)</li> <li>· 고려말 몽고가 제주에 목장을 건설하면서 제주는 국내 최대의 말산지가 됐음을 설명.</li> <li>· 한라장축을 통해 도내 10소장(所場)과 63곳의 자장(字場) 설명</li> <li>-남도영 동국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제주의 목마기술에 대해)</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천필의 말을 국가에 헌납한 헌마공신 김만일 소개</li> <li>· 우도점마(牛島點馬), 공마봉진(貢馬封進)을 통해 말을 점검하고 조정에 보내기 전 확인하는 목사의 업무 설명</li> <li>· 제주는 군마(軍馬)의 최대 생산지였음을 강조</li> </ul>
	15	<p>▷ 스튜디오 브릿지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우(黑牛)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進上)을 설명</li> <li>· 감귤봉진(柑橘封進)을 통해 귤 진상에 대해 언급</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감귤시험장 현장의 제주 재래귤 소개</li> <li>-김한용 감귤시험장 육종연구실장 인터뷰(순력도의 유자, 진귤/진상된 귤의 용도)</li> <li>· 감귤봉진을 통해 한약재용 귤껍질 진피와 청피 소개</li> <li>· 남환박물 기록을 통해 공과원 소개</li> <li>· 용동과원터 현장에서 과원의 형태 확인</li> <li>-김한용 감귤시험장 육종연구실장 인터뷰(과원의 전형적인 형태)</li> </ul>
결	17	<p>▷ 스튜디오 클로징 멘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를 통해 제주는 해안 방어를 철저히 한 군사요</li> </ul>

	<p>새였으며 최대의 말 산지로 조선시대 군마의 공급지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력의 가장 막중한 업무는 군사 시설의 점검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 또한 진상품을 관리하고 진상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했음.</li> </ul>
--	--

<표-17>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JI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대구효성여대 학보 기사 소개, ‘제주와 관련된 오래된 화첩 하나가 발견됐는데 크나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li> <li>· 일주일 후 제주 유일의 일간지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됨.</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와 제주인과의 첫 만남(1974년 제주대 박물관)</li> <li>-홍순만 향토사학자 인터뷰(당시 탐라순력도를 보고 감동했다는 내용)</li> </ul>
승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이형상 목사가 1702년 가을 관내 순시를 하면서 이 때의 장면과 그 후의 행사를 그려놓은 것</li> <li>· 탐라순력도는 모두 41개의 그림으로 이뤄져 있고 각각의 그림은 삼단 구성형식으로 이뤄짐</li> <li>· 이형상 목사는 1703년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남환박물관 저술</li> <li>· 이형상 목사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목민관이요, 청백리였음.</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순력도의 41개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방어관련임. 제주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지만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였기 때문</li> <li>· 한라장축을 통해 제주 해안의 9개 방호소 설명</li> <li>-김동진 제주대 사학과 교수 인터뷰(제주목사의 업무와 지역방어)</li> </ul>
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방시사(別防試射)를 통해 활쏘기 행사 설명</li> <li>·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 활쏘기 장려 사례 소개</li> <li>· 활쏘기와 관련된 천제연 폭포 암벽의 시(詩) 소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래대렵(橋來大獵)을 통해 사슴, 돼지 등의 진상(進上) 소개</li> <li>· 조선왕조실록의 제주마 진상과 관련된 사례 소개</li> <li>· 공마봉진(貢馬封進)을 통해 조선조 당시 제주마의 가치 확인</li> <li>-임금이 타는 어승마, 중국에 바치는 동지마로 쓰임</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봉진(柑橘封進)을 통해 감귤을 진상하기 위한 과정 소개</li> <li>·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제주 감귤의 가치를 확인</li> <li>-‘임금이 창덕궁에 나가 선원전에 귤을 천신(薦新)하였다’</li> <li>· 귤림풍악(橘林風樂), 제주조점(濟州操點) 등을 통해 과수원 내부와 과수원의 위치 설명</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양로(濟州養老), 정의양로(旌義養老), 대정양로(大靜養老)를 통해 조선시대 경로효친 사상 설명</li> <li>· 제주양로의 기록을 통해 제주가 예로부터 장수 노인이 많았음을 확인</li> <li>-100세 이상 노인 3명이 경로잔치에 참석</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양로를 통해 경로잔치의 배치가 궁중연회와 일치하는 점, 포구문</li> </ul>

		<p>이 세워진 점을 통해 경로잔치의 무용이 궁중무용임을 확인. 이는 당시 궁중무용이 제주까지 전파됐음을 짐작케 함</p> <p>-장효순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전수자 인터뷰(탐라순력도의 궁중무용)</p>
10		<p>· 1991년 제주목관아 복원 사업을 시작하며 탐라순력도가 귀중한 사료가 됨. 외대문, 굴림당, 연희각 등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복원됨.</p> <p>-홍순만 향토사학자(목관아 복원에 있어 탐라순력도의 가치)</p>
11		<p>· 탐라순력도에서는 침엽수와 활엽수, 비자나무와 팽나무 등 식물을 수종별로 상세히 묘사, 당시의 식물 식생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됨.</p> <p>· 이를 통해 한라산 성널오름 주변은 3백년 전 당시 초지, 또는 목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p> <p>-김찬수 난대산림연구소 박사(탐라순력도의 식물 식생 묘사의 정확도/ 탐라순력도를 통해 3백년 전 한라산 식생 유추 관련)</p>
12		<p>· 한라장축의 경우 기록화가 아닌 지도에 가까움.</p> <p>· 도내 삼읍관아의 위치와 오름, 목장은 물론 80여개 포구까지 상세히 기록. 또한 다른 제주지도와 달리 24방위를 표시하고 남해안의 섬과 오키나와, 베트남 등 외국까지 표시됨.</p> <p>-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지도로서의 탐라순력도의 가치)</p>
13		<p>· 탐라순력도에는 역원근법(멀리 있는 것이 크게, 가까이 있는 것이 작게 표현)과 등축도법(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하는 기법)두 가지 회화기법이 두드러짐.</p> <p>· 이를 통해 실용적 목적의 기록화 장르의 관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님</p> <p>-양창보 前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역원근법 관련/ 탐라순력도의 회화적 가치)</p>
14		<p>· 탐라순력도보다 7년 먼저 제작된 탐라십경도(耽羅十經圖) 소개</p> <p>· 탐라십경도는 이익태 제주목사가 제주의 수려한 풍광 열곳을 가려내 병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를 비교해 보면 작가의 관점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p>-강창룡 제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탐라순력도는 탐라십경도를 보고 만든 것일 확률이 높음)</p>
15		<p>· 대구 효성여대 권영철 교수가 발견한 탐라순력도는 1979년 보물로 지정되고 98년 제주로 돌아오게 됨</p> <p>· 현재(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으며 제주목관아 박물관 공사가 마무리 되면 3백여년 만에 제주목관아로 돌아오게 됨</p>
결	16	<p>· 탐라순력도는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p> <p>· 21세기 제주의 모습을 담은 또 하나의 탐라순력도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탐라순력도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임</p>

<표-18> 겨울에도 푸른 숲, 꽃자왈 -KBS제주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이 흰 눈에 쌓임. 겨울 숲이 흰 빛으로 아름다운 시기, 제주도의 또다른 숲 꽃자왈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짐.</li> <li>· 꽃자왈에서는 아무리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열대지방의 원시림처럼 초록이 울창함. 그 숲은 왜 겨울에도 푸른 것일까?</li> </ul>
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전역에 큰 눈이 내린 1월 중순, 한라산에는 최고 2미터 까지 눈이 쌓임. 겨울숲에 굽주리던 노루들은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계곡과 능선을 따라 내려감. 노루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가는 곳이 꽃자왈.</li> <li>· 꽃자왈에는 송악과 구상나무, 고사리 등 노루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음. 겨울 한라산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푸른잎.</li> <li>-오홍식 제주대 생물교육과 교수 인터뷰(겨울철 노루의 서식지 꽃자왈)</li> <li>· 영하의 추위에 눈까지 내리는데 꽃자왈은 초록이 울창. 숲의 온도는 바깥보다 7℃이상 높음.</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 인터뷰(겨울 꽃자왈의 기후가 따뜻한 이유)</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의 암반 구조는 노루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까지 만들어 놓음. 또한 숲 전체가 암반 덩어리여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노루에게 최적의 서식지가 되는 것.</li> <li>· 사람들에게 꽃자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던 것.</li> <li>-현원학 제주환경운동연합 실장 인터뷰(꽃자왈은 최적의 노루 서식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숲. 점성이 강해 끈적끈적한 꽃자왈 용암은 식으면서 바위지대를 만들어 냄. 그 위로 부엽토가 쌓이고 풀과 나무가 자라 꽃자왈이 만들어짐.</li> <li>· 제주도 꽃자왈은 용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뉨. 바로 이 꽃자왈에서 제주 생태계의 다양성이 출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주변 용암이 평탄하게 흘러내린 곳에 초지가 발달해 노루들의 놀이터가 됨. 노루는 한낮에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이른 아침과 해질녘에 나와 움직임.</li> <li>-오장근 한라산연구소 박사 인터뷰(노루 가족의 생활 관련)</li> <li>· 꽃자왈 안으로 들어서자 덤불사이 조그만 통로, '노루길'을 볼 수 있음. 곳곳에 노루의 배설물과 은신처를 확인. 전문가들은 한라산 노루 말고도 수많은 노루들이 꽃자왈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li> <li>-현원학 제주환경운동연합 실장 인터뷰(꽃자왈 지대에 연중 노루 서식)</li> </ul>
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꽃자왈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특수한 지질과 기후조건으로 희귀한 식물상이 관찰되기 때문.</li> <li>· 꽃자왈의 높은 습도는 한 겨울에도 이끼로 뒤덮이게 하고 양치식물들에게도 최적의 서식환경을 제공. 미기록종 고사리인 '디플라지움 니포니쿰'과 천량금 군락이 국내최초로 발견.</li> </ul>

		-김대신 제주수목시험연구소 연구사 인터뷰(꽃자왈과 양치식물 관련) · 1월 중순, 천연기념물 원앙 200마리가 다려도를 찾음. 저녁 무렵이 되면 이들은 선흘꽃자왈 연못으로 이동. 선흘꽃자왈은 숲과 함께 연못과 습지가 잘 형성돼 있음. · 숲과 바다, 습지와 초원이 하나의 연결 고리 속에 있고 꽃자왈은 이 가운데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꽃자왈은 한라산만큼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 인터뷰(극상단계의 안정된 숲이자 희귀한 숲) · 2년 전 독수리 열여덟 마리가 철새로 날아왔다 꽃자왈에 서식. 꽃자왈에 그들의 먹이가 있기 때문.
	7	
	8	· 교래꽃자왈에 노루 밀렵꾼이 나타남. 숲 속에는 노루가 끌려가며 흘린 피가 흥건함. 꽃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에는 노루들이 차사고로 죽어감. 현재 꽃자왈은 많은 4차선 도로가 숲 한복판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음. · 꽃자왈 전체에는 골프장도 37개나 들어설 예정. 제주도는 꽃자왈을 버려두느니 골프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는 발상.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대부분 꽃자왈에 집중돼 있음. 꽃자왈 내 골재채취장도 28곳에 이름.
	10	· 꽃자왈 일대의 한 도로공사 현장,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자 흘러내릴 겨를도 없이 땅속으로 스며들. 꽃자왈에 내린 빗물은 90%이상이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는 것. · 꽃자왈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깨끗한 지하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현해남 제주대 생물산업과 교수(꽃자왈 훼손과 지하수 오염)
	11	·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꽃자왈은 개발이 가능한 지하수등급 2등급을 받음. 개발허가의 면죄부를 얻은 것.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인터뷰(제주도 행정의 이중성) · 선흘꽃자왈 내부에는 수많은 용암동굴이 존재. 용암동굴은 지하수가 흐르는 길이 됨. 꽃자왈 전체에 이런 용암동굴이 얼마나 파악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음. 사람들은 꽃자왈에 대해 알기도 전에 파헤치고 있는 것. -김봉찬 평강식물원 소장 인터뷰(꽃자왈은 독특한 생태환경 가진 자원)
결	12	· 묘산봉 개발지구가 들어서는 선흘꽃자왈, 군유지 땅을 팔아 개발이 시작되는 교래꽃자왈 등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 · 꽃자왈이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숨기고 있기 때문. 꽃자왈과 그 속에 깃든 생명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일 것.

<표-19> 원시의 숲, 교래곶은 사라지는가 -KBS제주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 중산간 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제주만의 숲 곶자왈,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이들을 가만 놓아두지 않음.
승	2	· 교래곶자왈(한라산리조트개발예정지)은 넓은 숲 속 곳곳에 초지가 펼쳐짐. · 지난 10월 일본식물학자가 이곳을 찾음. 일본에도 곶자왈과 비슷한 곳이 있고 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3	· 곶자왈의 근원은 오름들. 수십만 년 전 일부 오름에서 점성이 큰 용암을 뿔어냈고 이 용암이 굳으며 암괴형 지반이 제주에는 4군데 만들어졌음. 오랜 시간 후 바위 위로 이끼류가 들어서고 흙이 만들어지며 오늘날과 같은 숲이 된 것. ·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곶자왈. 곶자왈 내부에는 동굴과 같은 공극이 존재. -송시대 지질학 박사(동굴과 같은 공극의 형성 과정)
	4	· 곶자왈의 그늘진 내부 환경으로 아열대성부터 온대성까지 약 280종 국내 양치류의 80%에 달하는 고사리가 곶자왈에 서식. -김봉찬 식물학자(최근까지 미기록종 발견, 아열대성과 온대성이 혼재...) · 양치류의 식생이 다양한 이유는 습도가 높기 때문. 10미터의 거리에서도 온도는 2도℃, 습도는 28%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5	· 곶자왈에 여름 난초들의 꽃잔치가 열림. -김대신 한라수목원 연구사(교래곶자왈은 으름난초 서식하는 최저지대) · 큰오색따따구리, 곤줄박이, 삼광조, 팔색조 등 곶자왈에는 수많은 새들도 서식. -김은미 조류생태전문가(팔색조의 번식 관련)
	6	· 30여년전 북제주군은 교래곶자왈을 개인에게 목장용으로 인가했고 100만평 가운데 45만평이 초지대가 됐음. 초지대는 새로운 생태계를 탄생시켰. · 줄장지뱀의 산란기, 흙을 파헤치고 알을 낳기 시작. 두 달 뒤 교래곶자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만 어미 줄장지뱀은 때까치의 먹이가 됨.
전	7	· 2005년 11월, 교래곶의 주인인 북제주군은 100만평의 땅을 매각,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을 전제로 한 것. -강병근 박사 한라산리조트사업 총괄(관광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할 것) · 그러나 사업계획대로라면 숙박시설, 사파리, 인공습지,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게 됨.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의 핵심내용은 노루 등의 동물은 서식할 수 없고 환경부 멸종위기종도 없다는 것. 또한 개발에 문제가 없다

		는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되어 있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팀과 전문가들의 녹지자연도 조사에서 교래곶은 8등급에 해당. 따라서 교래곶이 7등급에 해당한다는 환경영향평가는 허위임이 드러남.</li> <li>-이경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특이한 안정상태에 도달된 숲)</li> <li>· 교래곶의 종다양성을 조사해보면 다른 지역이 100m<sup>2</sup> 당 10종 이하인데 비해 곶자왈에서는 11~15종이나 됨.</li> <li>-이경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종다양성이 높고 희귀종 많아)</li> <li>· 제작팀은 붓순나무, 제주특산식물 가시말기 등 희귀종을 발견.</li> <li>-김봉찬 식물학자(제주의 희귀식물 가시말기 군락이 곶자왈에서 발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 가을이 오자 열매가 맺히고 작은 새들이 열매를 쪼아댐.</li> <li>-김은미 조류연구가(가을 열매를 찾아 곶자왈이 활력)</li> <li>-박시룡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 교수(곶자왈은 수조원의 가치 있어...)</li> <li>· 양하를 찾는 사람들. 곶자왈의 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 받음.</li> <li>-주민 인터뷰(양하는 만병통치약...)</li> <li>· 곶자왈은 4.3과 별목 뒤 다시 살아난 숲. 과거 곶자왈은 노루 쫓이 가득한 숲.</li> <li>-주민 인터뷰(곶자왈에서 쫓, 노루 사냥했었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래곶에는 백백도요와 쇠오리, 노루 등이 서식.</li> <li>-오장근 한라산연구소 박사(노루는 많은 종류의 풀을 필요)</li> <li>· 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노루, 오소리 등의 중대형 포유동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지만 교래곶에서는 오소리굴까지 발견.</li> <li>· 새홀리기(멸종위기종)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 보호종)도 서식, 또한 희귀종 비바리뱀 발견.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이 발견 안 된 것으로 나타남.</li> <li>-강민수 제주대 교수(개발로 인해 초지면적 축소, 문제가 될 수 있어)</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래곶자왈 일대는 빗물의 90%이상이 지층을 통과,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지하수만 900만 톤에 달함.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280만톤의 물 필요.</li> <li>-강병근 박사 한라산리조트총괄기획담당(3만9천여평 습지 조성할 것)</li> <li>· 골프장 3개 이상의 코스 예정지가 숲으로 예정. 40~50년생의 나무가 있는 곳.</li> <li>-강병근 박사 한라산리조트총괄기획담당(나무들을 옮겨심을 계획)</li> <li>-정영교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교래곶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li> </ul>
결	12	수많은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을 품어온 교래곶자왈이 위기에 처해있음.

<표-20> 물의 숲, 곶자왈 -E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 제주의 겨울,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깥세상과 그 속도를 달리 하는 원

		<p>시의 숲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이 내려도 얼지 않고 쌓이는 순간 물이 되는 곳, 그래서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숲, 꽃자왈임.</li> </ul>
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중산간에 넓게 펼쳐진 꽃자왈은 열대 우림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생태로 세계적으로 희귀함이 손꼽힘.</li> <li>· 우리나라 이끼류의 80%가 자라는 꽃자왈에는 온갖 이끼와 희귀식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li> <li>-김봉찬 식물생태연구가 인터뷰(꽃자왈은 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li> <li>· 꽃자왈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위 덩어리로 쪼개지고 그 위에 만들어진 원시숲. 용암으로 만들어진 바위틈은 스스로 물과 열기를 조절해 바깥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냄.</li> <li>-김봉찬 식물생태연구가 인터뷰(숨골을 통해 꽃자왈에 습기가 공급)</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골이 있어 꽃자왈에는 같은 계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생명들이 움직임.</li> <li>-고평열 자연생태해설사(겨울 꽃자왈에 피어나는 여름 버섯들)</li> <li>· 한 겨울에도 영상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지열은 원시의 숲 꽃자왈을 지탱하는 에너지원.</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의 겨울, 눈이 내려도 숨골 주변에는 쌓이지 않음. 숨골은 숨골 밖에 비해 습도는 20% 온도는 5℃ 가량 높음.</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숨골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지열에 의해 데워지고 다시 숨골을 통해 수증기가 밖으로 나옴)</li> <li>· 이러한 용암바위층은 10미터 이상의 깊이까지 층층이 쌓여있음.</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꽃자왈은 빗물을 흡수하는 지하수 함양원)</li> </ul>
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는 구멍뚫린 현무암으로 이뤄져 비가 내려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림. 하천이 없는 제주에서 식수의 99%는 지하수로 충당해야 함.</li> <li>· 제주의 우물터는 그 모양새부터 독특함. 육지의 현무암과 바닷물이 만나는 틈새로 지하수가 솟아나오는데 이를 가두어 우물터를 만듦.</li> <li>-주민1 인터뷰(여름에는 물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li> <li>-주민2 인터뷰(위쪽에서는 떠먹고 밑에서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천수는 제주사람들에게 생명의 물. 꽃자왈은 지하수를 만드는 함양원으로 용천수의 양과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침.</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 인터뷰(용천수의 용출량이 크게 줄어)</li> <li>· 제주의 용천수가 마르기 시작하고 있음. 한림읍 동명리의 사찰내 용천수 생이물은 물론 인근 문수물도 마찬가지.</li> <li>· 문수물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의 양이 5년 사이 세배로 증가했고 식수로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li> <li>-문덕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인터뷰(상류지역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 축산시설 등의 토지이용 변화가 오염의 원인)</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수물은 인근 저지꽃자왈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저</li> </ul>

		<p>지곶자왈은 골프장은 물론 채석장과 축산시설까지 들어서 숲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홍곶자왈 역시 골프장과 콘도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관광지구가 들어설 예정. 곶자왈이 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실에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지적.</li> <li>-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인터뷰(곶자왈 개발과 지하수 오염, 생태계 훼손의 문제점)</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 개발을 허가한 지자체의 입장은 이와 다름.</li> <li>-고윤권 제주도 투자유치과 인터뷰(개발지구는 곶자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li> <li>·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선홍곶자왈에는 곶자왈 용암 뿐 아니라 빌레용암이 존재하기 때문.</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곶자왈 용암과 빌레 용암의 차이점)</li> <li>· 빌레 용암의 동굴 역시 거대한 빗물의 저장탱크. 잘게 쪼개지지 않아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대신 동굴의 입구가 물을 가두고 내뿜어 주는 역할을 함.</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예정지에는 빌레 용암 외에도 또 하나의 독특한 생태, 튜플러스가 존재. 튜플러스는 용암덩어리가 굳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li> <li>-송시대 지질학 박사(튜플러스 지형 관련/개발 예정지 서쪽에 곶자왈 용암이 혼재돼 있음)</li> </ul>
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한 시간을 찾아 해맨 끝에 곶자왈 지대를 찾은 제작진. 회귀종 백량금과 백서향을 만남.</li> <li>· 물을 품은 숲 곶자왈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가치 있는 공간. 이를 보존하는 일은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남겨진 크나큰 숙제임.</li> </ul>

<표-21> 생명의 땅, 곶자왈의 사계(四季) 1부-JI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과 중산간은 온통 하얀 백설로 덮여 있는 제주의 겨울, 매서운 북서계절풍이 불어 사람들의 체감온도를 떨어뜨림.</li> <li>· 그러나 이 계절, 중산간 지대의 곶자왈은 겨울을 잊음. 사계절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하는 곶자왈, 그래서 곶자왈은 생명의 땅이라 불림.</li> </ul>
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은 한 겨울에도 다양한 버섯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특히 한여름에 피어나는 털작은입술잔버섯과 애주름버섯류, 술잔버섯도 곶자왈에서는 한 겨울에 관찰할 수 있음.</li> <li>-고평열 자연생태해설사 인터뷰(잔나비버섯/ 곶자왈의 여름 버섯 관련)</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함을 상징하는 제주도롱뇽, 다른 지역에서는 새봄에 산란을 하지만 곶자왈에서는 한 겨울에 산란을 시작함. 제주도롱뇽은 곶자왈이 청정지대</li> </ul>

	<p>이며 겨울 없는 숲임을 증명하는 것.</p> <p>-고영민 제주여고 교사(제주도농농 관련/ 한 겨울에 산란하는 이유)</p>
4	<p>· 겨울 꽃자왈이 다른 곳보다 따뜻한 이유는 습골 때문. 한 겨울 영하를 가리키는 날씨 속에서 습골의 바위틈 사이의 온도는 14.3℃. 외부에 비해 15℃ 가까운 온도차를 나타냄.</p> <p>· 습골은 꽃자왈에 내린 빗물을 지하로 연결시키는 통로이자 땅속의 열기를 밖으로 토해내는 자리.</p> <p>-송시대 지질학 박사(꽃자왈 특유의 기후와 습골의 역할)</p>
5	<p>· 꽃자왈은 중산간 오름의 용암이 흘러내리며 만들어짐. 용암이 식으며 크고 작은 바위가 됐고 그 위로 이끼와 풀이 자라고 나무가 드리워지면서 숲이 생긴 것. 그리고 바위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꽃자왈은 제주도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을 함.</p> <p>· 제주의 꽃자왈은 동서부 중산간 지역에 넓게 분포. 면적은 110평방 킬로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를 차지.</p> <p>-송시대 지질학 박사(꽃자왈 내부의 모습/지하수를 함양하는 꽃자왈)</p>
6	<p>· 꽃자왈 특유의 환경은 여러 가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줌. 높은 공중 습도로 인해 나무는 바위위로 뿌리 내려 살아가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기온으로 수많은 양치식물을 관찰할 수 있음.</p> <p>· 제주의 식물은 모두 1800여종,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꽃자왈에 등지를 틀고 있음. 또한 30여종의 새가 살아가는 등 꽃자왈은 바닷가에서 한라산으로 연결되는 동물들의 안전한 서식처자 생태통로.</p>
7	<p>· 돌투성이 땅 꽃자왈은 언제부터인가 버려진 땅으로 인식돼왔고 시련의 시기를 맞게 됨. 돌투성이 땅 꽃자왈을 파헤쳐 채석장을 만드는가 하면, 꽃자왈 한가운데 골프장이 들어섬. 또한 수많은 불법 벌채와 도채의 표적이 되고 있음</p> <p>· 제주 꽃자왈의 면적은 110km<sup>2</sup>, 이 가운데 10%이상이 개발돼 있음. 이는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조경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p> <p>-현원학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인터뷰(꽃자왈이 파괴되는 원인)</p>
8	<p>· 꽃자왈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도내 각계각층의 인사가 한 자리에 모임. 꽃자왈 공유화 운동 출범을 위한 자리.</p> <p>· 2016년까지 사유지 꽃자왈의 10%를 기부와 성금 모금 등 도민의 참여로 매입하여 공공의 자산으로 보전하고 제주 특유의 생태관광 등 수익모델을 창출하자는 것.</p> <p>-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 인터뷰(꽃자왈 공유화 운동의 의의)</p>
9	<p>· 꽃자왈에 봄이 다가오자 복수초와 노루귀, 백서향 등이 피어난다. 새들의 구애가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새로운 식구를 위해 등지를 만듦.</p> <p>· 봄비가 내리자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이 시작된다. 오색딱따구리 한 쌍도 교미를 시작.</p>
10	<p>· 오색딱따구리 등지에 암컷이 알을 낳음. 그리고 산란 후 보름 만에 새끼가 태어남. 오색딱따구리 부부는 새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쉴 틈이 없</p>

		음. · 오색딱따구리 부부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누룩뱀이 둥지를 덮침.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새끼의 첫 비행을 이끌어 내고 어미는 누룩뱀과 사투를 펼침.
	11	· 봄이 완연해질 무렵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고 겨우내 알에서 깨어난 도롱뇽이 제법 모습을 갖추기 시작. 북방산개구리 올챙이도 알을 깨고 나옴. ·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땅 곳자왈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음.
결	12	· 계절을 잊은 숲 곳자왈은 지상 최고의 생태 낙원. 사계절 맑고 깨끗한 공기를 토해 내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급하기 때문. · 지각없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짓눌려 상처투성이가 된 곳자왈. 이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갈 때임.

<표-22> 생명의 땅, 곳자왈의 사계(四季) 2부-JIBS / 시퀀스 분석표

	시퀀스	내용
기	1	· 고요한 달빛 아래 물장군 수컷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냄. 열흘 전 암컷이 낳은 알을 지키기 위해서임. · 잠시 후 알에서 연두빛 애벌레가 꿈틀거리기 시작. 물장군 애벌레는 곳자왈에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승	2	· 저지곳자왈의 여름밤, 맹꽁이 울음소리가 허공을 메움. 산란 시기가 다가오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이 몸싸움을 벌이기 때문. · 저지곳자왈 습지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산란을 시작. 맹꽁이는 멸종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개체가 서식. 이들이 산란한 알은 불과 하루 만에 부화함. -고영민 제주여고 교사 인터뷰(맹꽁이 알의 부화 시간)
	3	· 안덕-상창 곳자왈 지대에는 갈매기난초가 꽃을 피움. 대홍란과 풍란, 차결이난등 수많은 희귀종들이 함께 꽃을 피움. · 숲 바닥에는 동양달팽이 한 쌍이 뒤엉킴. 하얀 관을 뺀어 교미를 하는 동양달팽이, 한 시간이 흘러서야 짝짓기를 마침. 난초와 달팽이는 습기로 가득한 곳자왈을 상징하는 존재.
	4	· 여름이 깊어가자 곤충들도 하나 둘 짝짓기에 나섬. 적갈색긴가슴잎벌레는 물론 쌍무늬바구미, 톱날노린재 등이 짝짓기에 한창.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멸종위기종인 두점박이사슴벌레의 교미. · 월림-신평곳자왈의 여름밤, 수많은 불빛이 숲을 가득 메움. 애반딧불이 수컷과 암컷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임. 애반딧불이가 곳자왈에 서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정지역임을 증명하는 것. -정세호 제주자연사박물관 동물과장 인터뷰(애반딧불이 존재의 의미)
	5	· 선흘곳자왈 곳곳에는 습지가 발달. 수면위로 멸종위기 식물인 순채는 물론 어리연꽃이 피어남. 그리고 초여름 알에서 갸물장군이 나타남.

전		<p>· 습지 물속에도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존재. 올챙이를 잡아먹는 물장군과 장구애비, 남은 시체는 물 속의 청소부 줄무늬물방개의 몫. 특히 물장군은 물속의 포식자로 참붕어까지 덮침. 물장군은 존재만으로도 꽃자왈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지표.</p> <p>-정상배 수서곤충연구가 인터뷰(물장군의 존재과 꽃자왈의 가치)</p>
	6	<p>· 여름비가 꽃자왈을 촉촉이 적시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버섯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함. 여름철 꽃자왈에서 자라나는 버섯들은 5백 여 종, 한라산 계곡 일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 꽃자왈의 습도가 연중 습도가 높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p> <p>-고평열 자연생태해설사 인터뷰(꽃자왈에 버섯이 많이 서식하는 이유)</p> <p>· 버섯은 죽은 생명체의 몸뚱이를 양분으로 함. 버섯은 꽃자왈의 청소부인 셈.</p>
	7	<p>· 버섯이 꽃자왈을 가득 메우는 계절, 가장 신이 난 것은 달팽이들. 달팽이는 숲 속 곳곳 버섯이 피어나기가 무섭게 주렸던 배를 채움. 버섯을 먹는 대신 버섯의 포자를 숲 속 곳곳에 퍼뜨림.</p> <p>· 꽃자왈 곳곳에는 독버섯도 고개를 내밀어 눈길을 끄.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나는 독버섯들, 하지만 독버섯 역시 달팽이에게는 좋은 먹이가 됨.</p> <p>-고평열 자연생태해설사 인터뷰(독버섯을 먹는 민달팽이)</p>
	8	<p>· 숲 속의 나무나 돌 틈에서 살아가는 청개구리가 물가를 찾을 때가 있음. 여름철 산란을 하기 위해서임. 물가에는 청개구리 수컷이 울며 암컷이 오기만을 기다림.</p> <p>· 하지만 물가에는 쇠살모사가 기다리며 이들을 노림. 물위를 헤엄치며 돌아다니다 자리를 잡은 쇠살모사. 알을 낳기 위해 물가를 찾은 청개구리는 쇠살모사의 먹이가 되어버림.</p>
	9	<p>· 초가을 무렵 태풍 나리가 제주를 엄습. 강한 비바람에 도내 하천은 범람했고 세찬 물줄기는 주택가와 마을을 덮침.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나리. 재해의 원인은 600mm라는 기록적인 강수량. 1년에 내리는 비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p> <p>· 하지만 태풍 나리의 피해는 예고된 재앙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중산간 일대의 난개발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빗물을 흡수하는 꽃자왈의 개발은 재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음. 자연은 지금 인간의 그릇된 행동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p>
10	<p>· 가을이 무르익기 시작하자 가을 꽃들이 피어남. 용담과 쑥부쟁이, 꽃향유가 피어나며 곤충들을 유혹.</p> <p>· 결실의 계절, 꽃자왈 나무마다 하나 둘 열매가 맺힘. 으름, 구지뽕나무, 말오줌떼 열매가 새들을 유혹. 새들은 열매를 먹고 씨앗을 멀리 이동시킴.</p> <p>· 도꼬마리와 도깨비바늘은 소들을 이용해 씨앗을 널리 퍼뜨림. 갈고리처럼 휘어진 씨앗이 동물이 몸에 쉽게 달라붙기 때문. 으아리는 깃털 같은 날개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감.</p>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바랜 풀 숲 사이로 왕사마귀 한 마리가 숨죽여 서있음. 알락하늘소를 덮친 왕사마귀, 하지만 딱딱한 껍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이내 놓아줌. 나뭇가지 사이로는 섬서구메뚜기가 호랑거미의 거미줄에 걸림. 겨울잠을 앞두고 숲 속의 포식자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li> <li>· 겨울을 앞둔 고래꽃자왈. 바위위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남. 나무 틈을 비집고 겨울잠 채비를 함. 애벌레 한 마리도 나뭇잎을 싸매 보금자리를 꾸ala.</li> </ul>
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생명이 침묵하는 겨울에도 꽃자왈의 생명들은 침묵하는 법이 없음. 그래서 꽃자왈은 모진 삶을 이어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제주 사람들과 꼭 닮아있음.</li> <li>· 맑은 공기와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꽃자왈,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꽃자왈을 생명의 땅이라 함.</li> </ul>

